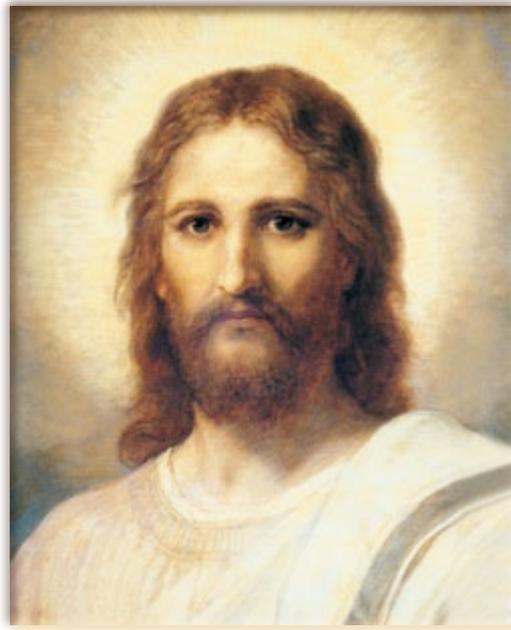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1년 10월호

리아호나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증거



“또 …… 너희 모든 땅 끝이여,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혹 너희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믿으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을 터이면 이 말을 믿으리니, 이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 이것은 만민에게 그들이 선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침이니라.
또 만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면 너희가 판단하라 - 이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이것이 그의 말씀임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임이요”(니파이후서 33:10~11)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사이몬 듀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세상에 나온
물문경은 고대 금판을 번역한 책이다. “[그
판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기록된 후에는
인봉되었고, 파괴되지 않도록 주께로 감춘 바
되었나니-이는 장차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되어 나아오게 하려 함이요……

이 기사는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이고, 또 그들로 주의 성약을
알게 하며,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닌 줄
알게 하려는 것이요-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 확신시키려는
것이니라”(물문경 표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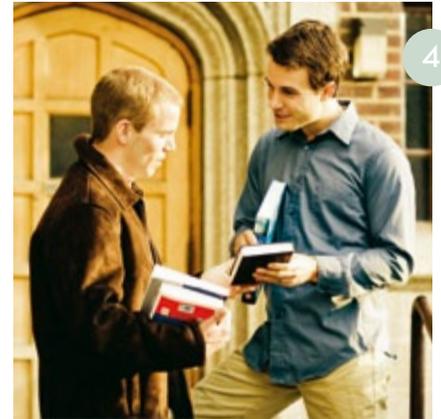
그들 모두를 고쳐 주시더라, 게리 캡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

이는 너희의 신앙이 내가 너희를 고치기에 족한 줄 내가 압이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우리가 다 일제히 그들의 병든 자와 그들의 고난당하는 자와, 그들의 저는 자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맹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말 못하는 자들과 함께, 또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아가매,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 주시더라.”(제3니파이 17:7~9)



특집호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몰몬경은 리아호나 한 호 전체를 할애할 만큼 가치 있는 몇몇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특집호는 이 특별한 경전에 대해 전 세계 회원들과 과거와 현재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간증을 담았습니다. 몰몬경은 기적과도 같은 기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회복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이며, 우리 교회의 종석입니다. 몰몬경은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교리를 분명하고 단순하게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가족을 강화합니다.

이번 호에는 리아호나에 실리던 여러 기사들이 빠졌지만, 제일회장단 메시지(4쪽)와 방문 교육 메시지(46쪽)는 변함없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들과 그밖의 다른 기사들에는 몰몬경에 대한 간증과 몰몬경 안에 실린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특별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그 메시지와 몰몬경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4 제일회장단 메시지: 몰몬경에 담긴 귀한 약속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46 방문 교육 메시지: 의심하지 않으면

표지
사진 삽화: 존 루크; 너희가 알 수 있도록, 개리 캡, 데이비드 라슨 씨와 데이비드 라슨 양이 제공, 복사 금지; 그리스도의 이미지,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제공.



특집 기사

6 선지자 조셉 스미스: 물몬경 번역자
 학식이 없던 젊은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감에 찬 번역자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을 내놓았다.

10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물몬경의 가르침
 러셀 엠 넬슨 장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힘을 얻고 싶습니까? 물몬경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 물몬경 이야기
 이 경전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를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 이 기사가 도움이 될 것이다.

20 물몬경 연대표
 주전 2200년경에 살았던 야렛 백성부터 니파이 문명이 끝난 주후 420년경까지 살았던 주요 백성들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요.



22 물몬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고대 선지자들과 영감받은 편찬인 그리고 후기의 번역자들의 노고로 물몬경이 나오게 되었다.

24 물몬경: 성경과 함께하는 증언
 이 기사에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물몬경이 증거를 더한 열네 개 기본 교리가 실려 있다.

28 물몬경을 공부하는 방법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이 특별한 경전을 공부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와 방법.

32 리하이의 꿈: 막대를 굳게 잡으십시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리하이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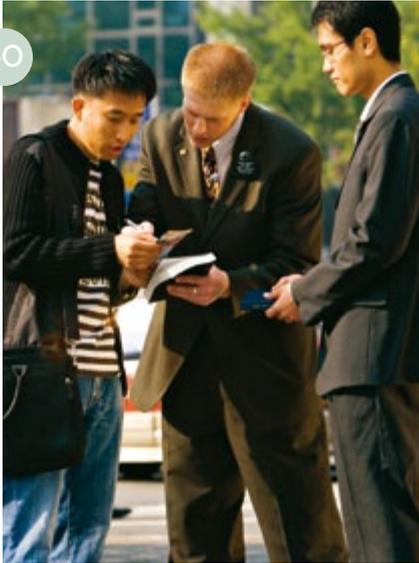
38 물몬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이 물몬경은 우리 가족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47 음악: 힐라맨의 이천 용사
 보니 하트 머레이, 재니스 캡 페리

48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침이 될 물몬경의 진리들을 나눈다.

52 물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25년 전에 주어진 이 고전적인 말씀에는 물몬경에 관한, 시대를 초월한 간증과 권고가 들어 있다.

59 성스러운 사업
 데이비드 에이 페이츠
 한 단순한 행동에서 물몬경의 성스러움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배웠다.



60 진정으로 알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물문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기록임을 알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65 포스터: 티끌에서 나는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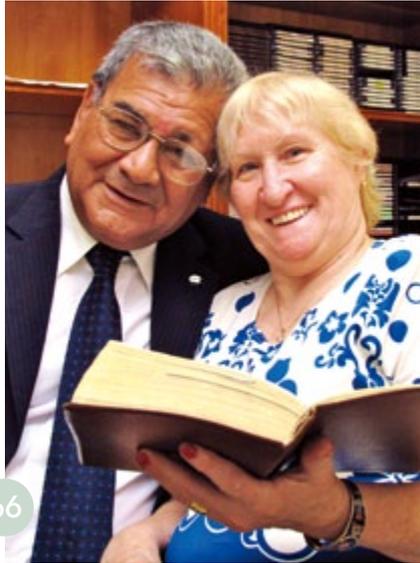
66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
 마이클 알 모리스
 에두아르도 콘트레라스는 글 읽는 법을 배운 날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얻었다.

68 물문경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회원들이 해답과 위안을 얻고 개종을 하는 데 물문경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를 간증한다.

72 모든 방언과 백성에게
 리아 맥클라너한

전 세계 후기 성도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물문경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76 물문경에 관해 자주 하는 질문들
 사람들이 물문경에 관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

80 간증, 성약, 그리고 증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저는 세 명의 증인과 여덟 명의 증인과 함께 금판을 실제로 본 것처럼 이 책에 대해 확실한 간증을 전합니다.



이 특집호에서 가능한 한 많은 리아호나를 찾아 보십시오.

2011년 10월호, 제48권, 제10호
 리아호나 09690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재일위원장: 토마스 에스 몬스, 헨리 비 아이머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튼 패리, 라셀 엠 스타, 달린 에이치 욱스, 엘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앨 앤드슨

편집인: 폴 비 파이퍼

고문: 스탠리 지 앨리스, 크리스토퍼 콜든 이세, 요시히코 기구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루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팔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애덤 시 울슨

공통 편집인: 수잔 배넷, 라이언 카, 앨리스 매릴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러트, 라넌 포드 곤트, 레리 힐러,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레이 오데카거, 조슈아 레이 피커, 제드 이 패리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톨니, 제니 토마스, 앨리스 캔덴, 볼 벤넨버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누드슨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쉐켄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타스

선임 디자이너: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에스 처일드, 콜린 힐클러, 예릭 피 존슨, 스킵트 엠 유이

제작 스태프: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렛,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터커,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버, 지니 제이 닐슨

사진 인쇄: 제프 앨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우 책임자: 애반 달슨

통 관: 제540호, 제48권, 제10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1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일: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g에서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g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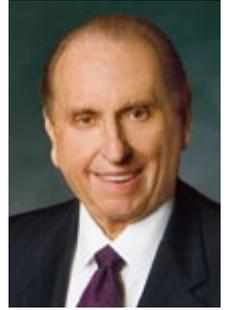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벨라루스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October 2011 Vol. 35 No. 10.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
 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몰몬경에 담긴 귀한 약속들

여 러 해 전에 저는 생사를 헤매는 한 젊은 아버지의 걸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거의 낮이 나간 그의 아내와 두 자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제 손을 붙들고 간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저는 곧 죽겠지요? 제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늘의 인도를 구하고자 조용히 기도하려 할 때, 마침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경전 합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경전을 들고 펼쳐 보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엘마서 40장에서 손이 멈춰졌습니다. 저는 다음 구절을 형제님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보라, 이는 천사에 의해 내게 알려졌나니,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또 ……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그들의 모든 곤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엘마서 40:11~12)

제가 부활에 관해 계속 읽어 내려가자 이내 그 젊은 아버지는 안색이 밝아지고 입가에 미소를 띠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서며 이 사랑스러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자매님과 아이들을 만난 곳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진리를 갈구하던 일과 몰몬경에서 답을 얻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몰몬경에 담긴 귀한 약속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 ……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하면”(이더서 2:12) 평화와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되며] …… 결코 끝이 없는 행복”(모사이야서 2:41)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딸들을 구하려 “[그분의] 손에 든 도구”가 된 이들은 “불가해한 기쁨”(엘마서 28:8; 29:9)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또한 흠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집합하리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선교 사업을 펼침으로써 이 대업을 위해 힘씁니다.(제3니파이 16장; 21~22장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가족이 축복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이 나옵니다.(제3니파이 18:21 참조)

우리가 몰몬경을 연구하면 “더욱 충만히 주님의 영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적인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몰몬경에는 기도와 진정한 의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이 약속들이 참되다는 것을 “성신의 권능으로”(모로나이서 10:4~5 참조) 알게 되리라는 모로나이의 약속 또한 있습니다.

앞서 계셨던 후기의 선지자들과 더불어 저는 이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²,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몬경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이 책에 담긴 교훈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읽는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도록 이끕니다. 물몬경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책을 읽고, 또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책에 담긴 귀한 약속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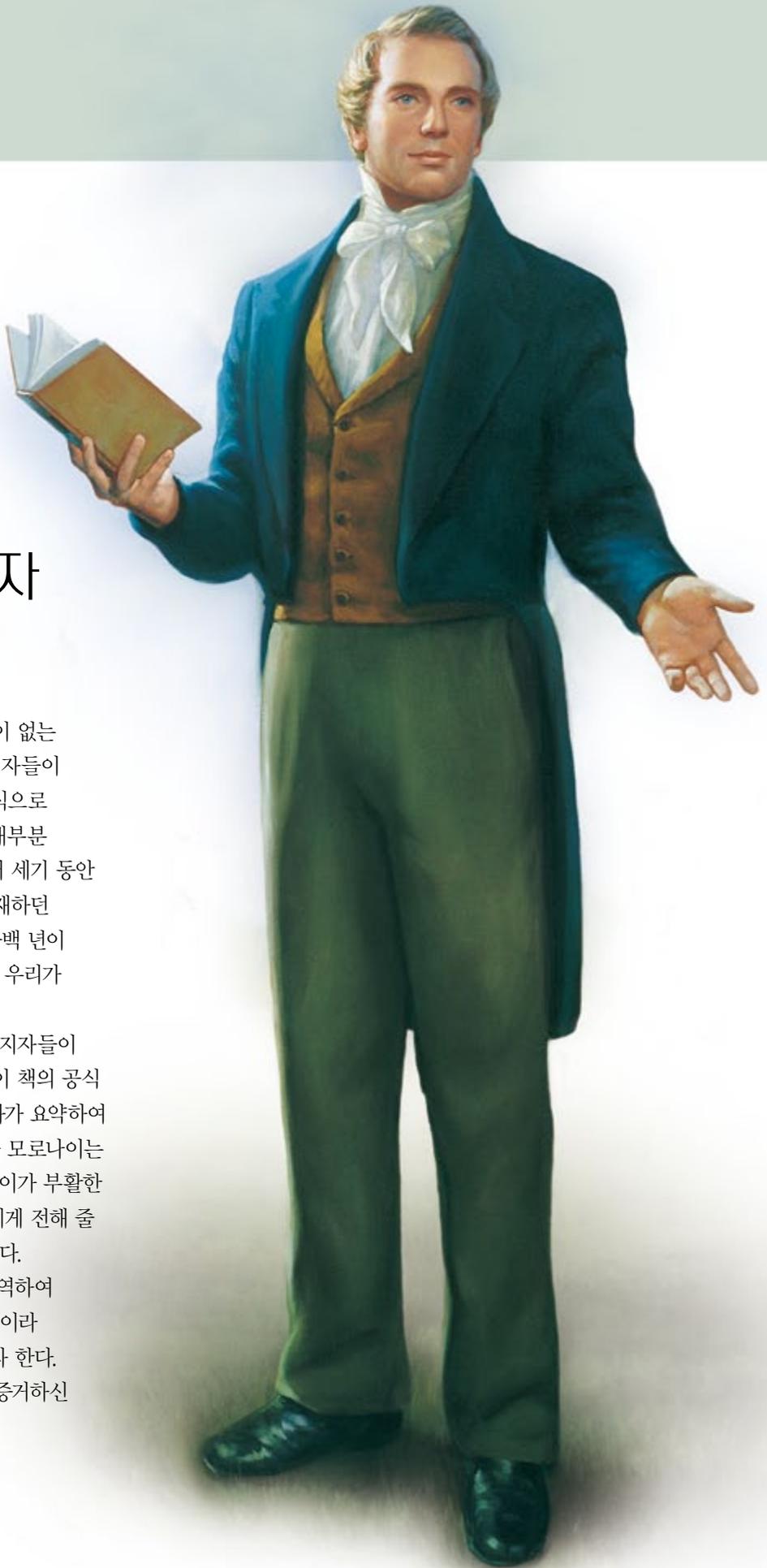
1. 고든 비 헝클라,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야호나*, 2005년 8월호, 6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63쪽.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우리는 경전에서 “인류의 가족들이 …… 직면하게 될 모든 혼동과 문제, 그리고 모든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51쪽) 가족들에게 이 기사를 전할 때, 몬슨 회장이 언급한 물몬경에 나오는 “귀한 약속들”에 귀를 기울이도록 권유한다. 물몬경에 담긴 약속들 중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한 가지를 택해 나눌 수도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몰몬경의 번역자



몰몬경은 경전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책이다. 몰몬경 역시 고대 선지자들이 기록했지만 성경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성경은 구대륙에서 대부분 필기자들이 두루마리에 옮겨 적으며 여러 세기 동안 날권으로 전해진 기록이다. 날권으로 존재하던 이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사백 년이 지나서야 한 권으로 묶이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 칭하는 형태가 되었다.

반면 몰몬경은 신대륙에 있던 고대 선지자들이 금속판으로 남긴 기록을 주후 5세기에 (이 책의 공식 명칭이 된) 몰몬이라는 단 한 명의 선지자가 요약하여 금판에 기록한 책이다. 후에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는 그 판을 땅에 묻었으며, 1827년에 모로나이가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 조셉 스미스라는 젊은이에게 전해 줄 때까지 그 판은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었다.

조셉 스미스가 어떻게 기록을 받고 번역하여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 불리는 이 기록을 출판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몰몬경은 구주께서 직접 그것이 참됨을 증거하신 기록이다.(교리와 성약 17:6 참조)



1. 1820년, 열네 살 소년이었던 조셉 스미스는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에 살았다. 조셉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여기실지를 염려했고, 여러 기독교 종파에서 가르치는 주장들로 혼란스러웠다. 당시 기독교에 속한 여러 종파들은 다른 종파의 주장을 폄하하면서 개종자를 모으려 애썼다. 조셉은 성경을 공부하던 중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야고보서 1:5)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기로 다짐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숲으로 들어갔다.



2. 조셉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밝은 빛기둥이 그에게 임했다. 조셉은 그 빛기둥 안에서 두 분을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조셉 스미스—역사 1:17) 주님은 조셉에게 그 어느 곳도 참되지 않으므로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복음의 충만함이 가까운 장래에 [그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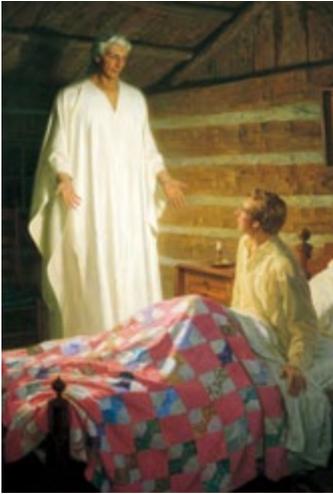


3. 조셉 스미스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었으나 돌아온 것은 박해뿐이었다. 그러한 곤경에 처한 채 3년을 지낸 조셉은 이렇게 적었다.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는 것일까?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왜 세상은 내가 실제로 본 것을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려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나는 시현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감히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조셉 스미스—역사 1:25)

원저부터 조셉 스미스 데이비드 리스리 © 1998; 성경에서 지혜를 찾는 조셉 스미스, 마이클 웨일 © 1975;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현, 그레고리 울슨, 복서 글자; 회복의 신자 조셉 스미스 중 한 장면, 매튜 데이비어 © 1911

18 30년 이래로 물몬경을 읽은 수백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 물몬경은 구주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오늘날에도 구주께서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모로나이는 진리를 찾는 모든 정직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었다.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4. 1823년 9월 21일, 조셉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밝은 빛이 방안에 가득해지면서, 천사 모로나이가 나타났다.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고대 선지자들의 기록을 이야기하며 금판에 새겨진 그 기록이 근처 언덕에 묻혀 있다고 말했다. 조셉은 그 기록을 번역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5. 1827년 9월 22일, 마침내 조셉은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 언덕에서 큰 돌 아래 묻힌 돌상자에서 판을 꺼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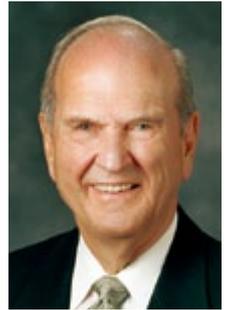


6. 당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흔히 그랬듯이 조셉 스미스 역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조셉이 번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림과 둠림이라고 불리는 고대 번역기를 마련해 주셨다. 또한 조셉은 번역한 내용을 받아 적을 서기들이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조셉의 아내인 에머와 부유한 농부였던 마틴 해리스, 그리고 교사인 올리버 카우드리가 서기로 봉사했다. 번역 대부분은 올리버가 서기로 일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끝났다.

에머는 조셉의 서기로 봉사한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가 영감을 받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와 같이 원고를 받아 적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서기로 일했을 때 [조셉]은 몇 시간씩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물문경의 가르침

물문경에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참으로 숭고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 독교인 대부분은 성경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잘 압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몸소 보이신 그 사랑에 감탄합니다. 스스로를 주님의 제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르고자 애쓰며, 그분의 사랑하는 사도가 준 다음과 같은 훈계를 따르려 노력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한1서 4:7~8)

물문경에는 이 가르침이 더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물문경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어떻게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문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힘을 미치게 하는 세 가지 핵심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 물문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그분과 맺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열쇠라고 가르칩니다. 물문경에서 그와 같은 성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났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모사이야서 5:7)

둘째, 구주께서는 복음 의식을 받으면 더욱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 없이 서도록 하라.”(제3니파이 27:20)

셋째, 주님께서 자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후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물몬경에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참으로 숭고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러한 모범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리하이와 그 가족을 사랑하셨고, 또한 그들 역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족은 약속의 땅인 미대륙으로 인도되어

그곳에서 번성했습니다.¹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전에 니파이인 선지자들에게 그 백성들에 관한 성스러운 기록을 보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기록에 담긴 교훈은 우리의 구원 및 승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가르침을 물몬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기록은 세계 곳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²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양들”을 사랑하셨기에 신대륙에 오셨습니다.³ 우리는 주님께서 구대륙에서 돌아가셨을 때, 큰 자연 재해가 신대륙에서 일어났고 그 대륙이 3일에 걸쳐 암흑으로 뒤덮였다는 것을 물몬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신대륙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 쓴 잔을 마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져



선지자의 간증

“물몬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은 티끌에서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 책은 주님의 탄생, 성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부활, 미대륙 풍요 땅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일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그 책을 손에 쥐고 만져 볼 수 있으며, 읽어 보고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 거룩한 기원에 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시험해 보았으며 그것이 참되고 거룩한 기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81~82쪽.

이를 앞으로써 사랑을 알게 된다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나에게 물몬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고한 증거이다. 앞서 살았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본향으로 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계획은 실재하며, 그것은 완벽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 책이 진리임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살아 계심을 아는 것이다. 인생이 아름답고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며, 가족이 참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며, 잃어버리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는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폭풍이 불어 오더라도 헤쳐 나갈 수 있으며 그런 어려움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아는 것이다. 성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점을 아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물몬경이 참됨을 아는 것은 온갖 형태로 표현되는 사랑을 아는 것이다.

에머 아데산야, 아일랜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노니”(제3니파이 11:11)

그런 다음 주님은 누구나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제3니파이 11:14)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옆구리에 난 상처와 손과 발에 난 못 자국을 만져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성신의 은사를 주셨으며, 성찬을 집행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열두 제자가 인도하는 주님의 교회를 백성들 사이에 세울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대륙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기본 가르침 중 몇 가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는데, 너무나 강력하고 성스러워서 그 기도는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힘이 담긴 그 기도를 들은 백성들은 기쁨으로 압도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으로 압도되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된 그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수세기에 걸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⁴

그런 다음 구주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려 오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우시더라.

그러고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하시더라.

구주께서는 복음 의식을 받으면 더욱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구주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 오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주목하여 보려 할새 그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더니,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고, 또 천사들이 마치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매, 저희가 내려와 그 어린 자들을 둘러싸니 …… 천사들이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라.”(제3니파이 17:21~24)

몰몬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힘과 그 순수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후기에 몰몬경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교회 회원이며, 그분의 복음을 알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분과 같이 사랑하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더욱 그분을 닮아갑니다.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의 영역은 더 넓어집니다.

주님께서 보여 주신 모범적인 생애에 크나큰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성구를 우리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모로나이사서 7:48)⁵ ■

- 주
1. 니파이전서 17:35~44; 모사이야서 7:20; 엘마서 9:9~11; 제3니파이 5:20~22 참조.
 2. 몰몬경 표제지; 니파이전서 13:35~41; 니파이후서 33:4; 모사이야서 1:2~7; 몰몬서 8:13~41 참조.
 3. 요한복음 10:16; 제3니파이 15:11~24 참조.
 4. 제3니파이 11~14장; 18~20장 참조.
 5. 요한1서 3:1~3과 비교.

주님의 사랑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깨닫다

대 학에 갓 입학했을 때 교회에 들어온 나는 생활방식을 바꾸게 되어 기분이 좋았고, 복음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내 과거가 나를 붙잡아서 더는 발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과거에 그런 형편없는 선택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몰몬경 마지막 장을 펼쳤고 거기서 모로나이가 작별을 고하며 남긴 말씀을 읽었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또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모로나이사서 10:32) 나는 그 구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영은 나에게 그 말씀이 참되다고 속삭여 주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도 맡기지 않으실 것이라 지레짐작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는 점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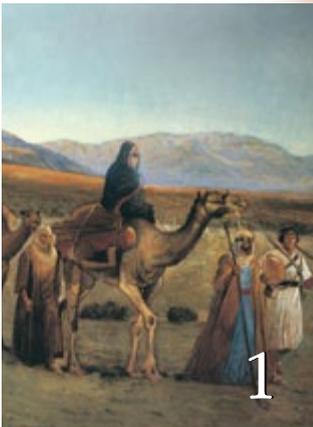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지 않고 나의 지난날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집중하고 정결하게 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할수록 구주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행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

크리스티 페티, 미국 워싱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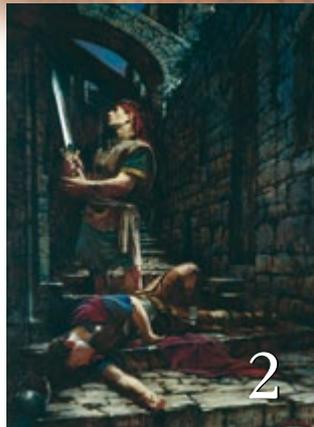


몰몬경 이야기

몰몬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다음 그림들을 활용하여 그 놀라운 경전 속 이야기들과 선지자들에 대해 배워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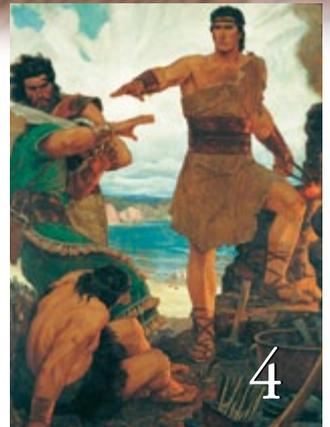
몰몬경은 리하이라 불리는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리하이는 사악한 예루살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리하이에 아내인 새라이아와 아들인 레이맨, 레뮤엘, 샘, 니파이를 데리고 광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니파이전서 1~2장 참조)



리하이는 놋쇠판에 기록된 경전을 가져오도록 아들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들에는 조상의 역사와 주님께서 명하시어 기록으로 남겨진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리하이와 니파이는 이 판들을 잘 보관했고, 가족들이 겪은 많은 일을 기록했습니다.(니파이전서 3~5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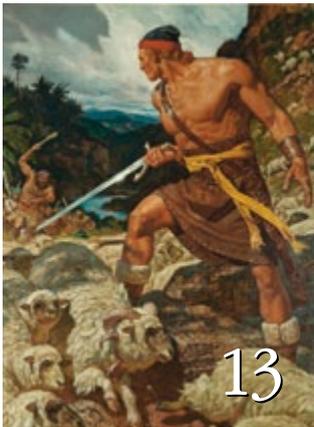


주님은 광야를 여행하여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리하이 가족을 인도해 줄 나침반인 리아호나를 주셨습니다.(니파이전서 16장 참조)



주님은 니파이에게 약속의 땅까지 가족이 타고 갈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는 아버지와 주님께 순종했지만 레이맨과 레뮤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니파이전서 17장 참조)

모사이야의 아들인 암몬은 라모나이 왕의 양 떼를 지켜 내어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암몬은 많은 레이맨인들을 개종시켰습니다.(앨마서 17~19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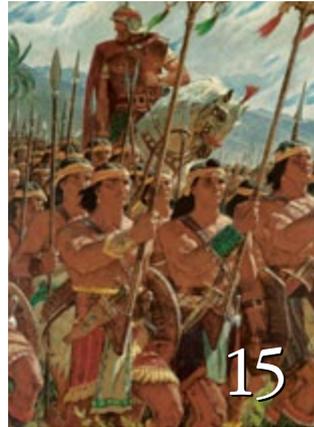
13

모로나이 대장은 자유의 기치를 쏜서 들고 백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앨마서 46, 48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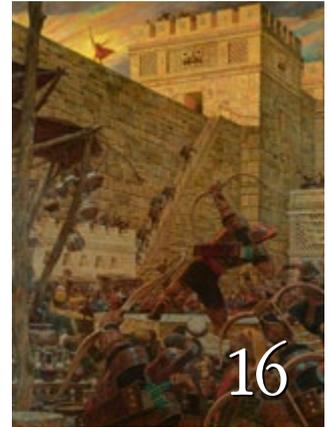
14

힐라맨은 의로운 청년 이전 명을 이끌었습니다.(앨마서 53, 56~58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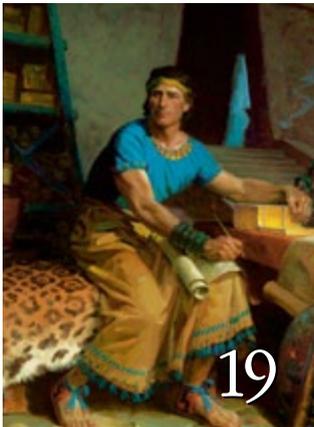


15

레이맨인 선지자 사무엘은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힐라맨서 13~16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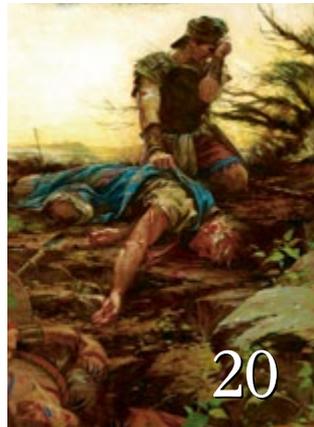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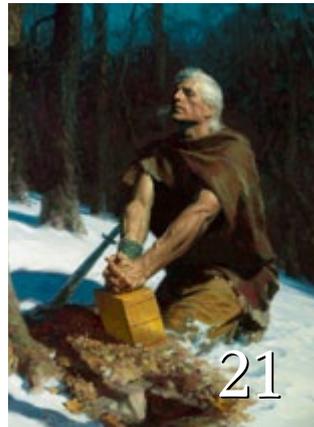
19

열 살 난 소년 몰몬은 장차 자라서 판에 기록을 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24세 때에 몰몬은 모든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선정하여 금속판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몰몬서 1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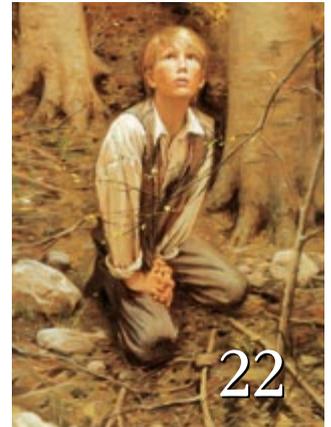
20

죽음을 앞둔 몰몬은 아들 모로나에게 판을 주었습니다. 모로나이는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모로나이는 레이맨인과 니파이인들 사이에 일어난 큰 전투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니파이인이었습니다.(몰몬서 6, 8장 참조)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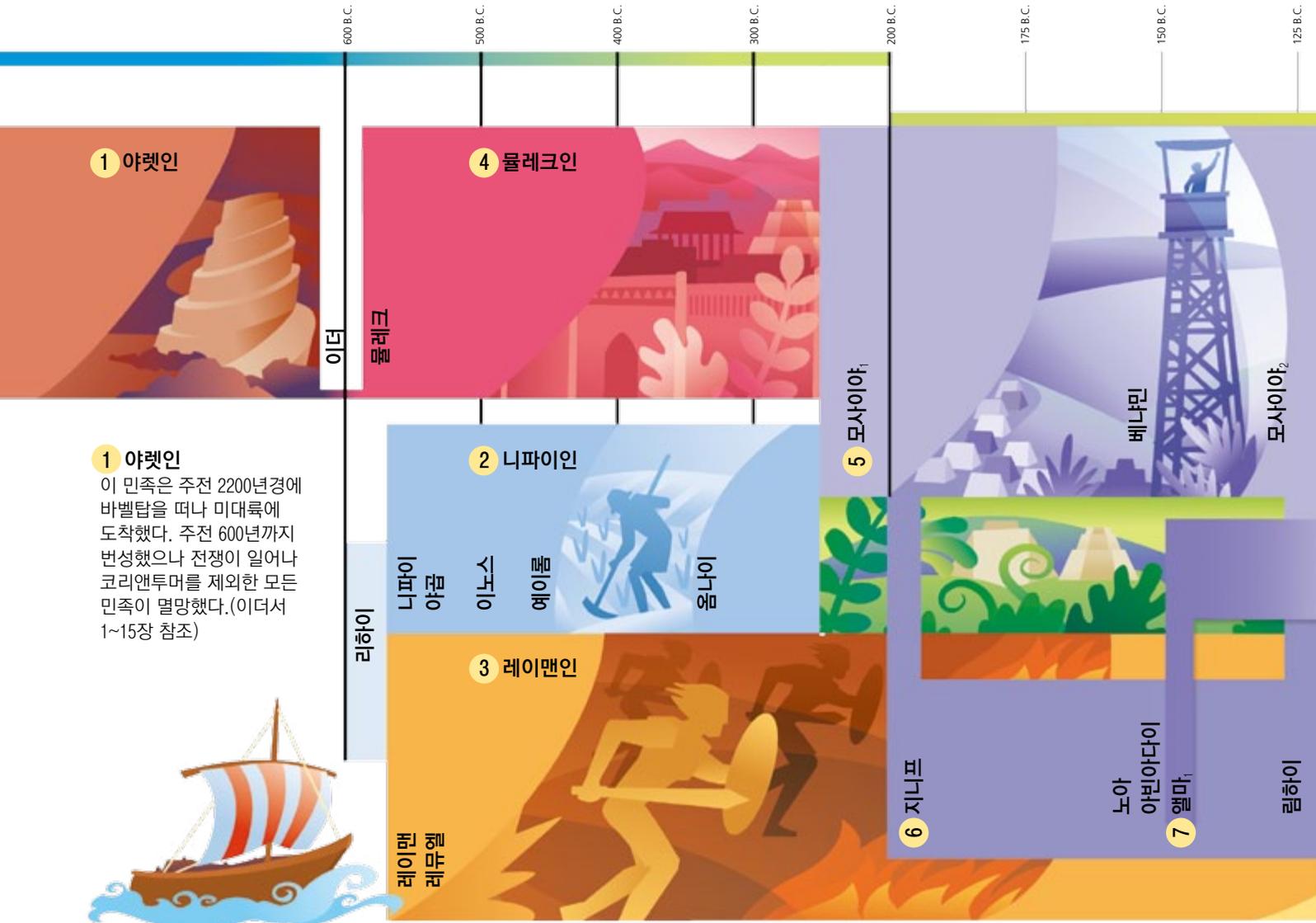
죽기 전에 모로나이는 쿠모라라고 불리는 곳에 판을 묻었습니다. 모로나이가 판을 묻고 1,400여 년이 지난 후, 열네 살 소년인 조셉 스미스는 어느 교회가 옳은지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5~16 참조)



22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셔서 그 어떤 교회도 참되거나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셉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7~20 참조)

메갈리트 연대표



1 야렛인

1 야렛인

이 민족은 주전 2200년경에 바벨탑을 떠나 미대륙에 도착했다. 주전 600년까지 번성했으나 전쟁이 일어나 코리엔투머를 제외한 모든 민족이 멸망했다.(이더서 1~15장 참조)

2 니파이인

주전 600년경 리하이 무리는 예루살렘을 떠나 미대륙으로 갔다. 리하이의 후손은 점차 나뉘어 갈라지게 되었는데, 리하이가 죽은 후 의로운 후손들은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를 따라 북쪽으로 이주했으며, 이후 그들은 니파이인이라 불리게 된다.(니파이전서 1~22장; 니파이후서 1~5장 참조)

3 레이맨인

리하이가 죽은 후에 악한 사람들은 리하이의 아들 레이맨과 함께 남았고, 이후 그들은 레이맨인이라 불리게 된다.(니파이후서 5장 참조)

4 몰레크인

주전 587년경, 시드기야 왕의 아들인 몰레크는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를 이끌고 미대륙으로 갔다. 이 무리는 미대륙에서 코리엔투머를 발견하게 된다.(옴나이서 1:14~21 참조)

5 모사이야1

주전 225년경, 니파이인들이 사악해지자 모사이야1,는 의로운 니파이인들을 이끌고 제이라헬라 땅으로 가서 몰레크인과 함께 지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니파이인이라 칭했다. 모사이야1는 의로운 왕이 되었으며, 그의 아들은 베나민 왕이다.(옴나이서 1:12~23 참조)

6 지니프

주전 200년경, 니파이인인 지니프는 니파이땅을 소유하고자 사람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한 지니프의 무리는 레이맨인들에게 속박당하게 된다. 후에 모사이야2 왕이 이 무리를 찾기 위해 암몬을 보냈고, 암몬은 립하이 왕을 개종시켰다.(모사이야서 7장; 9~22장 참조)



100 B.C. 75 B.C. 50 B.C. 25 B.C. 0 A.D. 33 A.D. 100 A.D. 200 A.D. 300 A.D. 400

8 엘마 이세
모로나이의 대장
힐라맨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

9 개다이엔톤 도적단

레이맨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레이맨인 사무엘

베렐렘에서 태어나신 예수

10 예수 그리스도

제자 니파이

9 개다이엔톤 도적단

11 니파이인의 멸망

모로나이

모로나이의



7 엘마₁
지니프 백성으로 태어난 엘마는 사악한 노아 왕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 선지자 아빈아다이는 노아 왕에게 회개를 외치다 화형을 당했으나, 엘마₁가 아빈아다이의 가르침을 믿었고, 그는 믿음을 같이 하는 무리와 탈출하여 니파이인에 합류했다. (모사이아서 11장; 17~18장; 23~24장 참조)

8 엘마₂와 모사이아₂의 아들들
젊은 시절에 엘마₂와 모사이아₂ 왕의 아들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꾸짖었고, 그들은 회개했다. 엘마₂는 의로운 지도자가 되었으며 (모사이아서 27~29장 참조) 모사이아₂의 아들들은 선교사가 되어 레이맨인들에게 나아갔다. 선교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모사이아₂의 아들들은 엘마₂와 재회하여 기쁨을 나누었다. (엘마서 17~26장 참조)

9 개다이엔톤 도적단
이 흉악한 비밀 결사는 사회가 사악해질 때 가장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쳤으며, 반면 사회가 의로울 때는 무력해졌다. 주후 350년경, 이 도적단은 모든 백성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힐라맨서 2장; 6장; 제4니파이 1:42~4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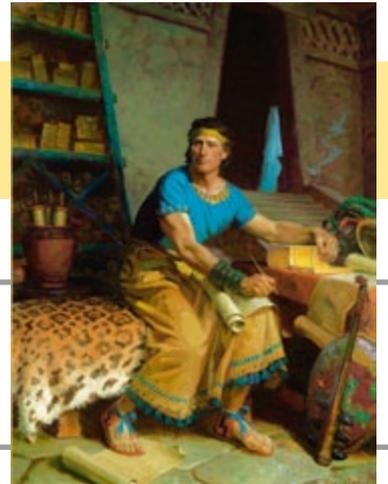
10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미대륙에 나타나시어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고,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조직하셨다. 주님이 방문하신 이후 200년에 걸쳐 이 백성은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제3니파이 11~28장 참조)

11 니파이인의 멸망
점차로 악이 만연해지고 전쟁이 일어나 니파이인들은 멸망을 맞았다. 유일한 생존자인 모로나이는 니파이인의 기록을 보관했으며, 죽기 전에 그 기록을 땅에 묻었다. (제4니파이 1:24~28; 몰몬서 8:1~8; 모로나이서 10장 참조)



몰몬 경은

고대 선지자와 역사가, 지도자들이 자신의 간증과 역사를 금판 위에 새겼다. 그 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원판의 요약본을 번역했다.



고대 원본 기록 저자와 출처

니파이¹, 야곱, 이노스, 예이롬,
옵나이, 그리고 그 외 사람들

몰몬

라반의 뿔쇠판
(니파이전서 5:10~14 참조)

지니프

리하이(니파이후서 1:1~4, 11;
교리와 성약 3편, 소개 참조),
베냐민(옵나이사서 1:12~23;
몰몬의 말씀 1:16~18;
모사이야서 1~6장 참조),
모사이야₂(옵나이사서 1:23~25;
모사이야서 6:3 참조), 엘마 이세,
모사이야의 아들들, 힐라맨₂,
페이호랜, 모로나이 대장, 니파이₃,
니파이₄

몰몬

야렛인들이 기록한 판 스물넉
장. 이 중에 이더서도 포함되어
있음.(이더서 1:1~5 참조)

모로나이

판을 구성하는 기록

니파이의 작은 판(영적인 기록,
주전 600년경~주전 130년경)

몰몬의 말씀(니파이의 큰 판
요약본과 작은 판을 연결해 주는
내용. 1~18절 참조)

니파이의 큰 판(현세적 기록과
종교 역사. 주전 130년경~주후
321년경)

몰몬의 기록
(주후 345년경~주후 385년경)

이더서, 야렛인의
기록을 편집한 기록
(주전 2,400년경~주전 600년경)

모로나이의 기록
(몰몬서 9:30~37 참조, 주후
385년경~주후 421년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1823년 9월 21일 저녁, 천사 모로나이가 젊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몰몬경이라는 책으로 번역될 금판에 관해 말했다. 4년 뒤 조셉은 그 판을 받아 번역했다.(조셉 스미스—역사 1:27~54 참조)



1827년 9월 22일, 모로나이 천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금판을 전달했다



몰몬경

몰몬의 판
(몰몬과 모로나이가 기록했거나 요약한 기록)

봉인된 부분
(번역되지 않음)

표제지*
니파이전서
니파이후서
야곱서
이노스서
예이름서
오나이서
몰몬의 말씀
모사이야서
엘마서
힐라맨서
제3니파이
제4니파이
몰몬서
이더서
모로나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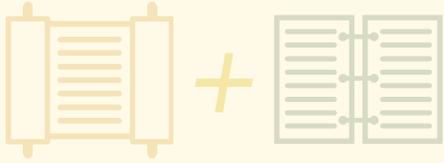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몰몬경 표제지는 판의 맨 마지막 장에서 왼쪽 편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1:71)

번역 원고는 1829년에 완성되었으며, 1829년과 1830년 사이에 인쇄용 원고가 완성되었다. 1830년, 몰몬경 초판 5,000부가 출판되었다.

이 도표에 실린 정보는 몰몬경 머리말과 본문에 기초해 작성되었다.



왼쪽부터: 사진, 제단 블라크, 믿음 요약하는 몰몬, 몰 라벨,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천사 모로나이, 몰 라벨, 사진, 크레이그 데이몬드, 모로나이가 금판을 전해 주다, 캐리 켈, 복사 금지, 사진, 에일리 리시먼, 사진 인쇄, 존 루크



몰몬경 : 성경과 함께하는 증언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린도후서 13:1)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법칙에 따라 몰몬경과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복음 원리를 가르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경전에 실린 증언들은 그 진실성을 서로가 증거합니다. 오래 전에 한 선지자는 몰몬경이 ‘[성경]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인 바,

만일 너희가 [성경]을 믿으면 너희는 [몰몬경]도 믿을 것이요[몰몬서 7:9]라고 기록하며 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두 경전은 서로를 가리킵니다. 몰몬경과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시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¹ 성경 속 핵심 교리에 대해 몰몬경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더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성경과 몰몬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가르친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앨마서 24:14)을 마련하셨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뻐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사도행전 17:28; 또한 시편 82:6; 히브리서 12:9 참조)

몰몬경: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니파이전서 11:17; 또한 니파이전서 17:36 참조)

죽음과 영의 세계

성경: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전도서 12:7; 또한 베드로전서 3:19~20; 4:6 참조)

몰몬경: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앨마서 40:11; 또한 12~14절 참조)

부활

성경: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기 19:26; 또한 에스겔 37:12; 고린도전서 6:14; 15:54 참조)

몰몬경: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지고 죽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 내가 아노라.”(니파이후서 9:4; 또한 니파이후서 9:12; 앨마서 11:43~45; 40:23 참조)

계명을 통해 길을 찾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에 순종할 때 축복이 돌아온다고 가르친다. 몰몬경의 선지자들 역시 계명을 기록하고 순종했다.



선지자의 간증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가장 훌륭한 책인 성경과 몰몬경을 공부하여 되도록 모든 내용들을 배운 다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종류의 부패와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다면, 가장 높으신 이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존 테일러(1808~1887)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2001년), 148쪽.

순종에서 오는 축복

성경: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 이 모든 명령을 ……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신명기 6:24~25; 또한 잠언 4:4; 요한복음 14:21 참조)

몰몬경: “그는 만일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다면 너희가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너희에게 약속하셨나니, 그는 그가 말씀하신 것에서 결코 변경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면, 그 또한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느니라.”(모사이야서 2:22; 또한 니파이후서 1:20 참조)

십계명

성경: 주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출애굽기 20:1~17 참조)

몰몬경: 아빈아다이가 노아 왕의 제사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모사이야서 12:33~36; 13:12~24 참조)

십일조

성경: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말라기 3:10; 또한 레위기 27:30 참조)

몰몬경: “바로 이 뿔기세택에게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렸나니, 참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십일조로 바쳤느니라.”(앨마서 13:15; 또한 제3니파이 24:8~10 참조)

침례와 성신

성경: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또한 마가복음 16:16; 사도행전 2:36~38 참조)

몰몬경: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 없이 서도록 하라.”(제3니파이 27:20; 또한 니파이후서 9:23; 31:5~9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성경과 물문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증거한다. 두 책 모두 구주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며 죽음을 이기셨다고 가르친다.



선지자의 간증

“물문경은 …… 성경이 참됨을 천명하며, 성경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두 경전은 서로가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121쪽.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또한 마태복음 16:16; 요한복음 6:69 참조)

물문경: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참으로 그는 아들이시요, 아버지의 독생자시요, 은혜와 자비와 진리가 충만하시도다.”(엘마서 5:48; 또한 니파이전서 11:16~21; 모사이야서 3:5~8 참조)

우리 죄를 속죄하십시오

성경: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8; 또한 히브리서 9:28; 베드로전서 3:18 참조)

물문경: “보라, 그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시나니”(니파이후서 2:7; 또한 니파이전서 11:33; 엘마서 34:8~10; 제3니파이 11:14 참조)

우리의 슬픔을 지시다

성경: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사야 53:4; 또한 히브리서 2:18 참조)

물문경: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엘마서 7:11~12; 또한 모사이야서 14:3~5 참조)

죽음을 이기시다

성경: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린도전서 15:20; 또한 요한복음 14:19; 사도행전 26:23 참조)

물문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으나, 아버지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사 이로써 무덤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셨고”(몰몬서 7:5; 또한 모사이야서 16:7~8; 힐라맨서 14:17 참조)

초기 예수 그리스도 교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미대륙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 성경과 물몬경은 주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백성을 조직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선지자

성경: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또한 예레미야 1:7; 7:25 참조)

물몬경: “모든 일이 영에 의해 선지자들에게 알려짐이내이다.”(니파이전서 22:2; 또한 야곱서 4:4~6 참조)

십이사도

성경: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누가복음 6:13; 또한 에베소서 2:19~20; 4:11~14 참조)

물몬경: “너희 중에서 내가 택하여 너희에게 성역을 베풀게 …… 한 이 열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제3니파이 12:1; 또한 니파이전서 11:29 참조)

신권 권세

성경: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요한복음 15:16; 또한 마태복음 16:19; 누가복음 9:1~2; 히브리서 5:4 참조)

물몬경: “[엘마가] 하나님의 반차를 좇아 그의 손으로 안수함으로써, 교회를 감리하고 감독할 제사와 장로를 성임하였더라.”(엘마서 6:1; 또한 니파이후서 6:2; 모로나이서 3장 참조)



선지자의 간증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려고 성경의 내용을 세상의 철학과 뒤섞어 놓아 그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녀들의 영적인 복리를 항상 염려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과 짝을 이루는, 물몬경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물몬경은 주님께 인도를 받아 선지자들이 말하고 기록한 책인 성경이 참됨을 옹호합니다. ……

이 두 번째 증거가 있기에 우리는 고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담긴 의미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사람들과 함께하며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스러운 두 권의 책을 하나의 책과 같이 연구하며 우리가 그러하듯이 그 참된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리를 좇는 순수한 구도자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President Harold B. Lee(1899–1973), *Ye Are the Light of the World*(1974), 89, 91.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면

이 도표에 이 주제들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경전을 공부할 때 이 목록 외에도 참고 자료를 더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경전 안내서와 scriptures.lds.org에 있는 온라인 학습 도구를 활용하면, 물몬경과 성경에서 어떤 교리를 공통으로 가르치는지 더 알아볼 수 있다.

주

1. 러셀 엠 벨슨, “경전상의 증거”,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43쪽.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몰몬경을 공부하는 방법

25 년 전, 에스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후기 성도들이 평생에 걸쳐 몰몬경을 연구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¹

- 첫째,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리와 간증을 증거하는 종석입니다.
- 둘째, 몰몬경은 우리 시대를 위한 기록입니다.
- 셋째, 몰몬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또한 우리가 이 특별한 경전을 공부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종교의 종석

몰몬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과 충만한 복음에서 종석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몰몬경을 공부할 때, 그 안에 담긴 구주에 관한 많은 가르침과 간증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비싸지 않은 새 몰몬경을 구입해서 구주와 그분의 성역과 사명에 관하여 가르치거나 언급하는 모든 부분에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깊어지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들과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기록

저자들은 다가올 세대, 특히 후기를 염두에 두며 몰몬경을 기록했습니다. 몰몬은 니파이인의 기록을 요약하면서 “백분의 일”도 담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제3니파이 5:8; 또한 몰몬의 말씀 1:5 참조) 모로나이는 “……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노라.”라고 밝혔습니다.(몰몬서 8:35) 이 두 저자를 포함한 몰몬경의 저자들은 영감에 따라 후기에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왜 이 내용이 포함되었을까? 이 말씀을 이 시대에,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떠올리며 몰몬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벤슨 회장은 그러한 예로, 몰몬경에서 구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쟁 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박해와 배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하고 물질주의의 위험에 맞서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² 니파이가 그랬듯이 우리도 경전을 공부할



끊임없이 배우고자 계속 공부하며

처음 몰몬경을 읽었을 당시 나는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열여섯 살에 나는 그 책을 일주일에 걸쳐 다 읽었다. 몰몬경을 거의 다 읽어 갈 무렵,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라는 구절을 읽게 되었다.(제3니파이 27:8 참조)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몰몬경이 참됨을 알았고 침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침례를 받고 나서 나는 다시 몰몬경을 읽었다. 이번에는 형광펜을 사서 영감을 주는 구절이나 단락을 표시했다. 그 다음 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하되 표시한 부분 여백에 짧게 기록도 남겼다. 그 다음에 읽을 때에는 몰몬경이나 다른 표준 경전에 있는 연관된 구절들을 참조할 수 있게 적어 넣었다.

연초가 되어 나는 새로 경전을 구입했다. 가지고 있던 것은 선교 사업 동안 사용하며 수많은 토론을 준비했고 그에 따라 여러 표시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며 표시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정 주제에 고유 색상을 정했다. 예를 들면 신앙은 주황색, 회개는 녹색, 이런 방법으로 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몰몬경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나는 몰몬경을 한 번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배운다. 그뿐만 아니라 몰몬경을 몇 번 읽었느냐에 관계 없이 읽을 때마다 늘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왜 전에는 보지 못했지?” 하고 말하면서 말이다.

경전, 특히 몰몬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 가르쳐 준다. 경전을 공부하며 나는 그분들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크리스티나 베르가라 라미레즈, 칠레

때 그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비유”해야 합니다. 즉, 몰몬경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야 합니다.(니파이전서 19:23 참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벤슨 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참으로 몰몬경은 진리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진실로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담겨



선지자의 간증

“저는 집사가 되기 전에 몰몬경을 읽기 시작한 뒤로 줄곧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

아마도 이 교회 회원이라면 몰몬경을 읽고 또 읽은 후 완전히 숙고해 보아 그 책이 진정한 능하신 이로부터 온 영감이 어린 책이며, 그 역사가 참되다고 간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1876-1972), Conference Report, Oct. 1961, 18.

있으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 있습니다. 몰몬경에서 나오는 힘은 여러분이 그것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 것입니다.”³

몰몬경을 공부하면 영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 영을 통해 우리는 계시를 받습니다. 이는 곧 몰몬경을 읽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묵히 명상하며 연구하고, 기도하고, 글로 적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경전을 공부하는 동안에 자신이 겪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빛과 이해력이 생깁니다. 때로는 이야기 구성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몰몬경 전체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구절이나 쪽수로 하루에 읽을 분량을 정하는 것보다는 매일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보조 학습 자료

다행스럽게도 현재 우리에게서 몰몬경을 공부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경전 안에 있습니다. 영어판 경전에 있는 주제별 안내서, 성경 사전, 색인과 그 밖의 다른 언어로 된 경전에 있는 경전 안내서가 그것입니다. 또한 후기 성도 경전에는 매 쪽마다 수많은 주석과 상호 참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판물로 만들어진 다른 보조 학습 자료로는 주일 학교 반원 학습 지도서와 세미나리 학생 학습 지도서, 종교 교육원 학생 교재가 있습니다. 31쪽에 소개되어 있듯이 근래에는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학습 도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종으로 이끄는 도구

몰몬경은 주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를 위해 고안하고 마련하신, 그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보물이며, 우리를 개종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저에게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왕국”⁴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간증의 원천입니다. 저는 “너희 주요 너희 하나님께서 사심 없이 그것을 참되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간증에 제 간증을 더할 수 있어 기쁩니다.(교리와 성약 17:6) 여러분도 평생에 걸쳐 몰몬경을 공부하며 더 깊이 개종하고 영생으로 직행하는 길로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

주

1. 에즈라 테프트 벤슨,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4-7쪽, 이 유명한 말씀은 이번호 52-58쪽에 다시 수록되었다.
2. 에즈라 테프트 벤슨,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쪽 참조.
3. 에즈라 테프트 벤슨,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쪽.
4. 몰몬경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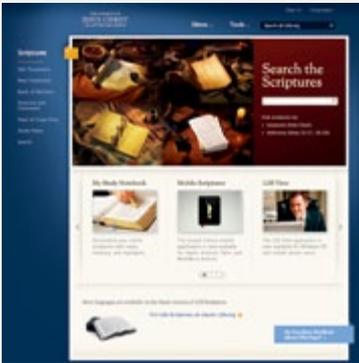
인터넷과 이동 통신 기기로 보는 경전

온라인(scriptures.lds.org)과 이동 통신 기기(mobile.lds.org)로 보는 경전은 빠른 주제어 검색, 상호 참조 기능, 개인 학습을 돕는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나의 학습 기록(notebook.lds.org)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학습 기록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공부할 때 기록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 강조 표시, 기록, 상호 참조 등을 하고 이를 저장할 수도 있는 학습 도구이다. 또한 기록한 내용과 앞으로 사용 가능하게 될 다른 자료들을 '태그'하거나 분류하고 발췌할 수도 있다. 이 사이트는 LDS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기기로 접속하더라도 항상 가장 최근에 만든 여러분의 학습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학습 도구로 복음 공부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주제별 기록 보관함도 만들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경전 및 여러 언어(scriptures.lds.org)

전자 경전과 음성으로 읽어 주는 오디오 경전은 현재 여러 언어로 LDS.org에서 그리고 휴대 전자 기기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되는 언어는 더 추가될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서 읽기, 듣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경전 파일을 내려받거나 오디오, 전자책, PDF파일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나온 교회 온라인 경전 사이트는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도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경전 구절이나 개인적으로 기록한 내용을 쉽게 나눌 수 있다.

LDS.org에서는 현재 21개 언어로 경전을 볼 수 있으며, 이동 통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 기반에 따라 약 10여 개 언어로 지원된다.



LDS 경전 인용구 색인(scriptures.byu.edu)

브리검 영 대학교 교수 두 사람이 만든 이 영어 자료는 경전 구절과 현대의 선지자 및 사도들의 말씀을 연결해 준다. 예를 들어 연차 대회에서 니파이전서 3장 7절을 인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화면 왼쪽에 있는 물문경 링크를 클릭해서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니파이전서 3장을 찾아 답을 구할 수 있다.



연차 대회 주제 색인(conference.lds.org)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연결해서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그 밖의 자료로는 conference.lds.org가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모든 연차 대회 말씀이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전에서 속죄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면 2011년 4월 연차 대회에서는 해당 주제에 관한 말씀 다섯 개를 찾아볼 수 있다.



리 하 이 의 꿈

막대를 굳게 잡으십시오

물문경 전체에 걸쳐 있는 주제, 즉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모든 이에게 권유한다.'라는 주제가 바로 리하이가 본 시현의 중심 주제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몰몬경을 사랑합니다. 복음과 관련된 제 오랜 추억 중에는 어머니께서 에머 마르 피터슨이 쓴 *어린 후기 성도를 위한 몰몬경 이야기*를 읽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그러한 일들, 그리고 평생토록 계속해 온 경전 공부와 기도 속에서 성신은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몰몬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임을 간증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몰몬경을 번역했고,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¹

리하이의 꿈에 나타난 주요 상징들

경전을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일은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특히 몰몬경을 펼쳐 리하이의 생명나무 시현에서 가르치는 요소들을 그렇게 알아보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니파이전서 8장 참조)

리하이의 꿈에서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은 바로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니파이전서 11:21~22 참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속죄 희생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니파이는 이 사랑을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 만한 것”이라고 간증했으며, 그의 시현에 나타난 천사는



선지자의 간증

“물문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땅과 하늘 사이의 교통이 다시 열렸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주는 주님의 참된 길이 지상의 인간에게 다시 계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President David O. McKay(1873-1970), "Marks Pointing to Authenticity of Book of Mormon," *Instructor*, Oct. 1952, 318.

그것이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니파이전서 11:22~23; 또한 니파이전서 8:12, 15 참조)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니파이전서 11장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니파이는 그것이 구주의 삶과 성역, 희생이자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상징한다고 언급했습니다.(니파이전서 11:16)

나무에 열린 열매는 속죄를 통해 오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열매를 따 먹는 행위는 우리 삶에 속죄가 온전히 효력을 미치도록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는 일을 나타냅니다. 열매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고]”(니파이전서 8:10)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며,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심어 준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물문경 전체에 걸쳐 있는 주제, 즉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모든 이에게 권유한다.’라는 주제가 바로 리하이가 본 시현의 중심 주제입니다. 사람들을 나무로 인도해 주는

쇠막대가 특히 흥미롭습니다.(니파이전서 8:19 참조) 이 쇠막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는 것, 혹은 꼭 붙드는 것

리하이는 시현에서 네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세 무리는 나무에 닿아 열매를 얻고자 험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지만 네 번째 무리는 나무를 찾으려 하지 않고 크고 넓은 건물을 최종 목적지로 택했습니다.(니파이전서 8:31~33 참조)

니파이전서 8장 21절부터 23절을 읽으면 우리는 생명나무로 이어지는 길에 들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첫 번째 무리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마의 유혹”(니파이전서 12:17)을 상징하는 어둠의 안개를 만나자 길을 잃고 방황하더니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는 쇠막대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은 구주께 가는 길을 알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전서 8:33) 나는 이 구절에서 세상을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는다. 니파이전서를 보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조롱하는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야유하는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으나 흔들리지 않았다.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 역시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엄청난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 간혹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리하이는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나는 성전에 가고, 경전을 읽고, 교회에 가고, 선지자를 따르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끌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 간단한 일을 하면 성신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속삭임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는다.

리하이의 모범을 따르고 다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 아니[한다면]” 험착하고 좁은 길 위에 계속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

멜리사 히튼, 유타, 미국



주는 신성한 나침반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영적인 확신을 보이며 길에 들어서서는 앞으로 나아갔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악마의 유혹을 받자 그들은 변해 버렸고 길을 잃었습니다.

니파이전서 8장 24절부터 28절 사이에는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험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던 두 번째 무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리는 “쇠막대를 꼭 붙든 채 밀고 나아가 어둠의 안개를 지나가더니 마침내 나아와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24절) 그러나 크고 넓은 건물에 있던 잘 차려 입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자 “부끄러워하더니,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28절) 이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 “쇠막대를 꼭 붙들었다.”고 묘사되어 있던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니파이전서 8:24)

두 번째 무리가 신앙으로 마음을 다해 앞으로 나아간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또한 쇠막대를 잡는 축복도 받았으며 그것을 꼭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박해와 시련에 부딪히자 금단의 길로 떨어져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신앙과 헌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쇠막대를 붙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따금씩만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쇠막대를 꼭 붙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꾸준히 하나가 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몰아서 하는 ‘벼락치기’ 공부나 수박 겉핥기식 공부를 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0절에서는 세 번째 무리가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은 채 앞으로 밀고 나아오더니, 드디어 나아와 엎드려져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았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무리 역시 신앙과 확신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들이 헤맸다거나 금단의 길로 떨어졌다거나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말은 찾아볼

신앙과 헌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험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가던 이 무리는 결국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따금씩만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사진 상화, 매튜 라이어

쇠막대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더 크게 보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걸을 때 확실한 지침이 되는 거룩한 경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고도 진지하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경전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멸망에서 구해 낸 것은 “작고 단순한 [듯]”(엘마서 37:6) 보이는 일에 쏟은 근면과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충실히 경전을 공부하며 “주에 대한 지식”과 “진리의 지식”(엘마서 23:5, 6)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전을 연구하면 겸손이라는 영적인 결실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겸손해진 이 사람들은 “엎드려져서 나무의 열매를 먹기에” 이르렀습니다.(니파이전서 8:30)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니파이후서 31:20) 얻은 영적인 자양분과 힘으로 이 무리는 크고 넓은 건물 속 사람들이 보내는 야유와 조롱을 무시해 버렸습니다.(니파이전서 8:33 참조)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세 번째 무리에 속해야 합니다.

니파이의 형제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보신 바 나무로 인도하는 쇠막대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에 [니파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니이다”(니파이전서 15:23~24)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쇠막대를 꼭 붙드는 것과 굳게 잡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쇠막대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더 크게 보자면, 거룩한 경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고도 진지하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경전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걸을 때, 생명나무로 향하는 험착하고 좁은 길을 걷는 여정에서 확실한 지침이 되는, 계시된 진리를 얻는 굳건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나의 부친이 보신 쇠막대가 생수의 근원, 곧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나니”(니파이전서 11:25)

물문경은 지금 우리를 위한 책임입니다

물문경에는 우리가 처한 이 시대와 상황에 필요한 지극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물문경이 우리 시대의 영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모로나이는 이러한 말로 강조했습니다. “보라,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노라.”(물문서 8:35) 물문경을 기록한 이 주요 저자는 우리 시대와 상황을 하나님의 예지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후기에 지상에 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와 예를 구체적으로 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에 주의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기 위해 나는 리하이가 본 생명나무 시현에서, 그리고 쇠막대를 계속 굳게 잡는다는 원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부지런히

찾고 영감을 구한다면, 성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붙드는 일의 중요성을 더욱 온전하게 마음과 정신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신앙에 따라 부지런히 자신의 삶과 가정에 적용하여 생활하는 축복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눈과 귀가 열려 리하이의 시현에 담긴 교훈을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63쪽.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나는 여동생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금세 교회가 좋아졌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침례도 받았다.

나는 글을 몰랐지만 물문경을 펼쳐 책장을 넘겨 보고는 했다. 그러면서 그곳에 적힌 단어들을 읽고 싶다는 강한 소망이 생겨났다. 아직 침례를 받기 전이었던 남편은 앉아서 책만 바라보는 나를 의아하게 여기며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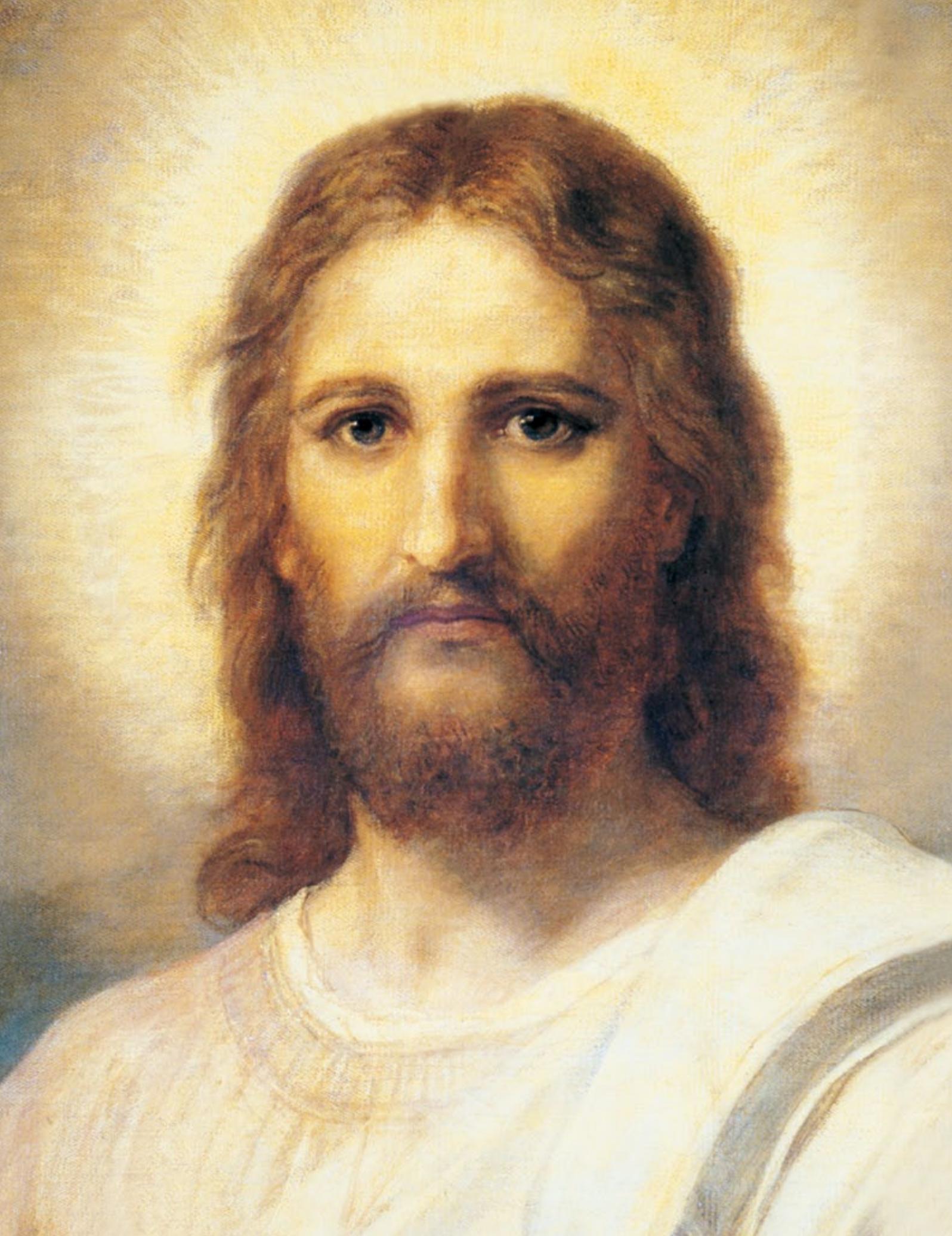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자녀들의 도움을 얻어 읽기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나의 목표는 물문경을 읽는 것이었다.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힘들어 할 때, 나는 이런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누가 있나 해서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딸에게 이제는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어 하고 말하게 되었다. 아이는 내 말이 믿기지 않았는지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책을 읽어 보이자 딸아이는 뭇 듯이 기뻐했다.

나의 목표는 물문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다. 속도는 느리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점은 이 훌륭한 책에서 영을 느낀다는 점이다.

에디트 펠리시아노 데 파올라, 상파울루, 브라질





몰몬경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다

몰몬경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권고합니다. 아울러 우리 가족이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몇 세기에 걸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여어 편찬한 몰몬경은 신권 열쇠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집합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할
미래를 위해 쓰여졌습니다.(니파이후서 25장;
27장; 제3니파이 21장 참조) 니파이는 이 거룩한
기록을 “티끌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니파이후서 33:13) 모로나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라,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몰몬서 8:35)

몰몬경은 우리 시대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회복 이후 100년이 흐르는 동안
약 백만 부에 달하는 몰몬경이 인쇄되었습니다.
15개 언어로 인쇄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 50년, 즉 1930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41개 언어로 약 이천오백만
부가 인쇄되었습니다. 그 이후, 즉 30년 전부터는
몰몬경 선집을 포함하여 모두 107개 언어로 1억
2천 5백만 부가 더 출판되었습니다. 몰몬경의

과급력과 그 영향력은 계속 증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몰몬이 쓴 표제지에는 이 책의 주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는 특별히
리하이의 후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몰몬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음] ……
확신시키려는” 것입니다.(몰몬경 표제지)

우리 시대에 미치는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담긴 강력한 선언에 또
하나의 증거를 더하여 강화하시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전하여 이전 세대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편리와 안락, 교통과 의료
기술을 누리게 되었고, 세상은 정보와 기술로
넘쳐납니다. 그것으로 더 쉽게 가족 역사 사업을



오늘날 세상에는 적그리스도 코리호어의 오만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면 진정한 개종이 일어납니다.

하고 복음을 나누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음란물과 가상 폭력,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 악과 의도”(교리와 성약 89:4) 역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 소유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환경 안에서 우리는 주의가 흐트러지고 유혹을 느껴 모든 세대를 위한 영원하고 참된 원리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저는 1970년대 초에 유럽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널리 받아들여지던 때라 보통은 배도에 관해 이야기하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 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그곳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목숨을 버리시고 3일 만에 일어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



선지자의 간증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재주를 다 합친다 해도 물문경과 같은 책을 써서 세상에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책에 있는 원리들은 신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결코 사기꾼의 생각이나 소설을 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약속과 예언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포드 우드럽(1807~1898)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월포드 우드럽(2004), 119쪽.*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현저히 증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적그리스도 코리호어의 오만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바라느냐? 이는 아무도 장차 임할 일을 알 수 없음이니라.

보라, 너희가 예언이라 하[는 이러한 것은] …… 너희 조상들의 어리석은 전통이니라.

……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나니 ……

……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대로 변영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정복하며”(엘마서 30:13~15, 17)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하고 안정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신앙이 우리 자녀와 손자녀의 마음에 흘러들 수 있도록 가족을 강화하는 일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면 진정한 개종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회개가 뒤따르고, 진실한 제자가 되며, 기적과 영적인 은사를 받고, 의로움으로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몰몬경의 신성한 사명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선교사 시절에 저는 한 성직자와 흥미로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몰몬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몰몬경에는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부터 그분의 이름과 생애의 사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구주를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구약과는 다른 유형을 몰몬경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이 곧 몰몬경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영적인 간증을 얻어야만 합니다. 간증을 얻으면 그리스도의 목적, 그분의 삶과 부활의 실재성,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성신의 권능이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말씀을 몰몬경에서 읽고 상고하면 그것이 참되다는 확실한 간증을 얻게 됩니다. 저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교리를 흡족히 취하며 몰몬경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모든 것은 몰몬경에서 비롯되었다

침례를 받고 여섯 달이 지났지만 나에게에는 몰몬경에 대한 강한 간증이 없었다. 경전을 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어느 날, 문득 복음 원리반 교사가 해 준 말이 떠올랐다. “경전을 읽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이 경전을 읽는 것을 사탄이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그 말 때문에 나는 몰몬경을 펼쳤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로우사 우리의 비참하고, 죄 많고, 더럽혀진 상태에서 우리를 빼내시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엘마서 26:17) 이 구절을 읽자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떠올랐고, 내 영혼은 기쁨으로 차 올랐다. 주님의 영이 내 가슴 속에 몰몬경이 참됨을 증거해 주었다.

나는 전임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세상이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고,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다. 지도자를 찾아가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에 대해 말씀드렸다. 교회 회원이 아니며, 다른 도시에 계신 부모님께도 내 소망을 말씀드렸다. 곧이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선교 사업에서 입을 양복도 샀다. 그렇게 준비하여 나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다.

지금 나는 아내와 딸과 함께 영원히 인봉되었다. 이러한 축복 역시 몰몬경에 대한 나의 간증에서 비롯되었다. 몰몬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렇기에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 신성한 기록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

아달손 루세로 도스 산토스, 브라질 파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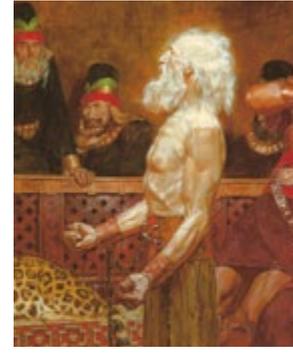
니파이의 시현



리하이의 간증



베냐민 왕의 설교



아빈아다이의 간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말씀을
몰몬경에서 읽고
상고하면 그것이
참되다는 확실한
간증을 얻게
됩니다.

니파이가 본 생명나무 시현에서 천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아느냐?”(니파이전서 11:16) 리하이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아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임하나니, 이는 그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심이라.”(니파이후서 2:6) 야곱도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문을 지키시는 이는 [그분이시며] …… 아무 종도 거기 두지 아니하시며”(니파이후서 9:41)

곧이어 우리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느니라”(모사이야서 3:17)라고 확고하게 선언하며 제자의 자질에 관해 가르치는 베냐민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신의 믿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아빈아다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나니, 그러므로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며, 사망의 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삼키운 바 되었느니라.

그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라. 참으로 결코 어두워질 수 없는 무궁한 빛이시요”(모사이야서 16:8~9)

엘마는 삶에 적용되는 속죄와 공의, 자비에 관한 아름다운 교리를 알려 줍니다. “이에 이제 속죄가 행하여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사,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라.”(앨마서 42:15)

그 다음 우리는 구주께서 리하이의 후손을 방문하신 영광스러운 장면을 읽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동정심을 느끼고, 그분의 간증과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니라 ……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가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같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제3니파이 27:13~14)

마지막으로 “너희는 반드시 …… 너희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 알라”(몰몬서 7:5)라고 호소하는 몰몬과 모로나이의 작별 인사를 읽게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모로나이서 10:32)

가족 중심 구성

몰몬경에는 영적으로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



작별을 고하는 몰몬과 모로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 또한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 지상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그 간증은 가족 역사라는 형태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몰몬경은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딸들은 물질적 소유물을 모두 뒤로 하고서 선지자인 가장이 받은 계시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권고에 순종했습니다. 이 책에는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과 약속을 심어 주려 애쓴 부모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전에 저는 몰몬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특별한 권고가 담긴 장수를 세어 보았는데 그런 내용은 무려 52쪽에 달했습니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부모가 어려서부터 순종적인 자녀뿐 아니라 때로는 같은 가정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위한 교훈입니다.

고대 기록이 대개 그렇듯이 여성과 딸의 구체적인 역할은 크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영원하고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히 다감하고 순결하며 섬세하다”(야곱서 2:7)라고 여성들에 대해 표현하거나, 힐라맨이 용감한 청년 용사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의로운 어머니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한 경우처럼, 여성과 어머니들에 관한 일화들은 우리에게 보물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명령의 모든 말씀을 정확히 순종하며 준행하였으며, 참으로 또한 그들의 신앙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이에 내가 그들의 어머니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들이 내게 이른 그 말을 기억하였느니라.

두 책 그리고 영원한 가족

집에 돌아오던 중 남편은 거리에서 가방 하나를 주웠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몰몬경이 들어 있었다. 남편이 그 책을 집으로 가져와 내게 보여 주었다. 남편은 얼마 동안 책을 읽고서 흥미를 느꼈지만 이내 잊어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나는 위로받고 싶었고, 죽은 뒤에도 삶이 계속되는지 알아보려고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많은 물음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고, 내 마음은 의심으로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보도에 놓인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몰몬경이었다. 그 책을 본 순간 사랑하는 남편이 생각나서 책을 집어 들었다. 몰몬경을 주웠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 책을 한 번 읽어 보라고 어떤 사람이 권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후기 성도인 내 자매를 찾아갔다. 그 집에 선교사들이 함께 있었고 모두 찬송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다. 바로 그때 선교사들이 내 질문에 답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토론을 하고 간증을 얻은 후에 나는 침례를 받았다. 이제 나는 조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확실한 간증을 나눌 수 있다.

남편과 내가 모두 몰몬경을 찾게 된 일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생전에 침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성전 의식을 통해 남편과 나와 소중한 우리 두 아이들이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몰몬경은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우리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주었다.

마리아 마시, 과테말라

니미의 시형, 클리크 켈리 프리이스, 리아동나 그림의 부분 확대. 아놀드 프리버그 © 1951. 드: 배나인, 영의 성교, 제레미 워버그, 부사, 글자. 노아 왕, 왕에 신 아반(아이다) 그림의 부분 확대. 아놀드 프리버그 © 1951. 회. 니미의 시형, 클리크 켈리 프리버그 © 1951. 회. 니미의 시형, 클리크 켈리 프리버그 © 1951. 회. 니미의 시형, 클리크 켈리 프리버그 © 1951. 회.

물문경에는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과 약속을
심어 주려 애쓴
부모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이 청년들의 신앙이었으니,
그들은 젊고 그들의 마음은 굳건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참으로 그들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었다.

또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말을 내게 들려주었더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였느니라.”(엘마서 57:21, 27; 56:47~48)

몰몬경에 담긴 내용을 여러분의 가족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자녀가 부모의 신앙에서 고결함과 의로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몰몬경의 구절은?
- 몰몬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권고 가운데 자녀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노력을 쏟으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몰몬경에서 부모들은 자신의 깊은 신앙을 어떻게 자녀들과
나누었는가?
-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이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역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이 소중한 신앙에서 떼어
놓으려는 세상의 영향력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 몰몬경은
우리과 우리 가족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권고합니다. 아울러 우리 가족이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몰몬경은 참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셔서 천사
모로나이가 이 책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몰몬경은 우리를 위한 경전이며,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를 위한 경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니고 매일
몰몬경을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할 것이며, 우리 가족은
영원토록 축복받을 것임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

현대에 적용되는 고대 이야기들

나는 언제나 몰몬경에서 답을 구했다. 그 책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내 자신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우리 여섯 자녀를 키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를 생각해 보았다.

어느 날 경전을 공부하던 중, 나는 몰몬경에 실린 전쟁 이야기 하나를 읽게 되었다. 다른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린 모로나이의 작전 명령이 내 가슴을 울렸다.(엘마서 46:12 참조) 니파이인들은 가족을 지키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읽으며 나는 살아가는 동안 그 니파이인들과 똑같은 목표를 따르겠다고 마음 먹었다. 개인적으로 느낀 감미로운 경험이었다.

나는 몰몬경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 쓰여졌다는 점을 안다. 인생에서 방향을 찾고자 할 때 몰몬경을 펴서 읽을 수 있다는 점에 감사드린다. 이것은 진정한 쇠막대이다.(니파이전서 8장 참조)

정은, 한국



신앙 · 가족 · 구제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경에 나오는 매우 용맹한 젊은이들의 이야기에서 큰 모범을 배웁니다. “참으로 그들은 진실하고 진지한 자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었음이다.”(앨마서 53: 21) 이 충실한 젊은이들은 자신에게 본보기이자 교사가 되어 주신 어머니에게 영예를 돌렸습니다.

힐라맨 용사들의 어머니들이 처한 시대는 우리가 사는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상황은 힘들고 위협했으며, 젊은이들은 신체적, 영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에베소서 6:12)하는 세상에 삽니다.

힘든 시기에는 힐라맨의 용사들이 알았듯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앨마서 56:47) 진리를 가르치는 강인한 부모와 모범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고 보여 주고자 한다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그분과 성약을 맺는다면 이 용사들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힐라맨이 이끌었던 용사들 2,060명은 거의 모두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들 혼자서 그 일을 해낸 것은 아닙니다. 이 어머니들은 틀림없이 성약의 권능을 가르치기 위해 다른 의로운 남녀들과 마음을 합하여 신앙과 모범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 시대 젊은이들은 부모님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맺은 성약을 이해했습니다. 성약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부모들이 성약과 자유를 지키도록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앨마서 56: 5~9 참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맺은 성약을 영화롭게 하여 자녀와 젊은이들이, 곧 자신의 자녀와 와드, 지부, 이웃과 지역 사회에 있는 자녀들이 성약 지키는 것을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자매들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인식하고 행사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2. 현재 겪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물론경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약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한 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성약은 정확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도와 경전 공부, 유효한 성전 추천서 소지, 정숙한 복장, 안식일 예배 참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앨마서 56:48)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속죄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는 후기 성도 여성들은 고난이 닥쳐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약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지하고 훌륭하게 양육하고 보호하면 언젠가는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 “그처럼 큰 용기를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나니”(앨마서 56:45)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www.
reliefsociety.lds.org](http://www.reliefsociety.lds.org)를
방문한다.

성구에서

앨마서 53: 56~58장



힐라맨의 이천 용사

보니 하트 머레이 작사
재니스 캡 페리 작곡

대답하게 ♩ = 96-100

1. 힐 라 맨 의 용 사 들 힘 과 능 력 지 녀 일
 2. 병 사 맨 들 의 의 용 어 머 니 가 르 침 주 시 녀 길 하
 3. 힐 라 맨 지 의 회 아 래 용 맹 한 용 무 사 장 들 신 하
 4. 힐 라 맨 의 용 사 들 용 기 로 무 장 해 하

어 나 싸 울 자 찾 는 부 를 에 답 하 여 하
 나 남 을 신 되 하 고 진 실 한 자 되 라 하
 앙 으 로 하 나 되 고 어 두 실 없 이 되 네 하
 나 님 의 힘 과 함 께 나 가 승 리 했 네 하

나 남 함 께 계 계 서 그 말 씀 따 라 서 두
 나 남 보 상 으 로 보 호 해 주 시 리 의
 나 님 원 치 는 않 고 자 유 를 원 했 네 생
 나 님 믿 는 신 앙 그 그 힘 더 해 주 네 하

려 위 하 지 않 고 서 당 당 히 맞 섰 네
 심 치 아 고 따 파 르 며 주 님 을 믿 었 네
 명 과 하 나 님 하 시 가 족 위 해 투쟁 했 네
 나 님 함 께 하 사 시 며 권 능 투 주 주 섰 네

© 2009년. 보니 하트 머레이 및 재니스 캡 페리. 판권 소유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본 내용은 각 사본에 명시되어야 함.

엘마서 53:56~57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주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몰몬경 이터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파도와 나아간 바람과 밀려올 넘치는 물에 대비하여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이 큰 깊음을 건널 수

없음이니라.[이터서 2:25]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명에 따라 생활한다면 파괴적인 파도와 바람, 넘치는 물에 비유할 수 있는 방종과 사악함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때 축복해 주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폐회 말씀”,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09쪽.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몰몬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니파이는 성신을 받기 위해 어떤 토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지금 몰몬경을 읽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보장될까요? 니파이의 기록을 주의 깊게 읽어보았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니파이는 그것이 ‘부지런히 찾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은 의심할 여지없이 꾸준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간절히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 정도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 역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President Henry B. Eyring, First Counselor in the First Presidency, “Going Home,” in *Brigham Young University 1986–87 Devotional and Fireside Speeches*(1987), 77–78.



복음을 선포하다

“모든 거룩한 경전에는 복음의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그것을 알려 주는 것은 몰몬경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입니다. 몰몬경과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기’](교리와 성약 14:7) 위해 따라야 할 그분의 교리와 복음을 직접,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9쪽.

우

리는 고대 선지자들에게서 명백하고 귀한 것들이 몰몬경에 많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보존되었다.(니파이전서 13:40; 19:3참조) 이 책에 있는 진리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을 분명하고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몰몬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희망을 품고 힘을 내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인용문에는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 현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간증이 담겨 있다.



어린 아이의 침례

“어떤 이들은 어린 아이가 죄로 잉태되어 타락한 상태에서 육신을 입는다고 여깁니다. 그 교리는 거짓된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알게 된 바가 사실일진대, 너희 중에 너희 어린아이들의 침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음이라.’ (모로나이서 8:5)

몰몬은 그 논쟁이 ‘큰 잘못’이라고 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의 구속주, 너희의 주 너희의 하나님인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나니,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온전하도다. 이는 그들에게 죄를 범할 능력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담의 저주가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제하여져서, 그들에게 아무 힘을 미치지 못하며 ……

이에 이와 같이 성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나타내셨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줌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조롱 행위인 줄을 내가 아노라.’(모로나이서 8:7~9)

몰몬이 쓴 서한 전체를 모두 읽어 보십시오. 그것은 참된 교리입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어린 아이들”,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21쪽.



몰몬경이 전하는 경고

“몰몬경에서 우리는 전쟁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전쟁이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교훈도 배웁니다. 몰몬경은 사람들을 지배할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 세워진 비밀 결사의 해악과 위험성을 알려 줍니다. 사탄이 실재함을 가르치고, 그가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의 예를 보여 줍니다. 부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도 있습니다. 명백하고 귀한 복음 진리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재하시는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속죄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후기에 이스라엘의 집이 집합하리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선교 사업의 목적과 원리를 알려 줍니다. 교만, 무관심, 미루는 것, 그릇된 전통의 위험성, 위선, 순결을 저버리는 것에 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몰몬경을 연구하고 원리를 배우며 삶에 적용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몰몬경을 읽음으로써 오는 축복”,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쪽.

하나가 된 두 막대기

나는 거의 갓난 아기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몰몬경을 받기 전까지는 복음이 가르치는 모든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이 두 번째 “막대기”(에스겔 37:15~17 참조)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막대기가 생기면서, 나는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잠재력이 내게 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 예언된 조합, 즉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17절)라는 말씀은 충실한 자매 선교사 두 사람이 내게 관심을 보이고 두 번째 막대기인 책을 남기고 간 덕에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내가 쫓발에 의지하여 걸었다면, 이제는 복음이 주는 축복의 충만함이 내 모든 틈새를 구석구석 환하게 비추고 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만 같은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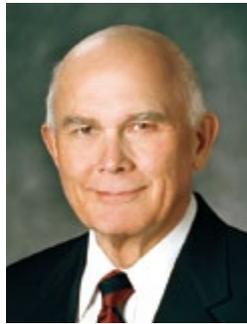
아리 살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가족은 영원해

나는 1995년에 침례를 받은 후로 몰몬경을 읽어 왔다. 하지만 결혼 후에야 우리 가족을 떠올리며 리하이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리저리 여행한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주님은 리하이가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를 바라셨던 것 같다. 주님은 맨 먼저 리하이에게 모든 것을 남겨 두고 현재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들이 아직 광야에 머물던 시기에 주님은 리하이에게 아들들을 돌려보내어 그들 조상들의 기록을 가져오라고 명하신다. 그 후에는 이스마엘과 그 딸들을 데려오도록 하셨다. 리하이가 미래에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이다. 영원한 가족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연결하는 일은 내가 소중하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몰몬경에 대해 나눈 간증은 이번 호 10, 28, 32, 38, 80쪽에 수록되어 있다.



모든 것이 회복될지니

“부활의 본질과 보편적인 특성이 몰몬경에는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앰올레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현세적 사망의 줄을 푸실 것이라, 모두가 이 현세적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으리라.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사지와 관절은 지금 이 시간의 우리와 같은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될 것이라 ……

이제 이 회복은 늙은 자나 젊은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약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할 것이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지금처럼 그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리니](앨마서 11:42~44)

앨마 또한 부활의 때에 ‘모든 것이 그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앨마서 40:23) ……

인생에서 …… 불편을 겪어 온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부활하리라는 지식은 얼마나 커다란 위안인지 모르겠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부활”,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7쪽.



비밀 결사의 위험

“몰몬경에서 우리는 범죄에 관여한 비밀 결사가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문명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현대에 존재하는 비밀 결사에는 폭력배, 마약 밀매 조직, 조직 범죄 단체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밀 결사들은 몰몬경 시대에 있었던 개다이앤티온 도적단과 매우

흡사하게 활동합니다. …… 그들의 목적은 ‘그들 나라의 법과 또한 그들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여, 살인하며, 약탈하며, 훔치며, 음행과 온갖 간악함을 범하는 것입니다.’(히라맨서 6:23)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비밀 결사들은 몰몬경 시대와 다름없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힘과 영향력을 손아귀에 넣고 말 것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진리와 정의를 수호함”,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38쪽.

여겨야 할 중대한 책임이다. 리하이가 그랬듯이 말이다. 리하이는 이러한 경험들로 생명나무 시현을 볼 준비가 되고 영원한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야 한다는 이해력을 얻은 것이 아닐까?

살로테 맬라니 매이워리워리, 미국 하와이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며

“몰몬경에 신성하게 담겨 있는 가르침은 잘못된 전통이 미치는 영향력을 바로잡고 인생의 충만함을 느끼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몰몬경은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나갈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 [주님께서] 삶의 중대한 잘못을 바로잡도록 길을 열어 주셨으나 그것을 책 속에 담아 둔 채 꺼내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참된 친구”,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84쪽.



성약을 일깨워 주는 몰몬경

“우리는 침례가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기 위한’[모사이야서 18:9] 성약이라는 점을 몰몬경을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브루넌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침례 성약: 왕국 안에 있으며 왕국에 속해 있음”,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7쪽.



순종으로 받는 축복

“몰몬경에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면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는 장면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니파이전서 2:20; 니파이후서 4:4 참조) 이 약속에는 종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 면전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경고 또한 뒤따릅니다.(앨마서 36:30 참조)” ■

퀸텐 엘 워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04쪽.

빛을 밝혀 앞으로 나아가다

이더서 2장에는 야렛의 형제가 배 안에 빛이 없어 걱정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이 문제를 주님께 여쭙었는데, 주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대답하셨다. “너희가 빛을 갖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예비하여 주기를 원하느냐?”(25절)

나는 주님이 하신 이 물음에 야렛의 형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일단 그는 산에 올라가 “한 바위로부터 작은 돌 열여섯 개를 녹여내[어]”(이더서 3:1) 그 돌을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기도를 드렸다.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춘 야렛의 형제는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는 기도에 응답하실 권능이 있으심을 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고는 “주께서는 …… 큰 권능을 능히 보이실 수 있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이더서 3:5)라는 말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 보였다. 야렛의 형제는 주님께 돌들을 만지시어 배 안을 환하게 해주시기를 청했다.

이 부분을 읽으며 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게 되었다. 전에 나는 종종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요?”하고 여쭙 보았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우리는 먼저 어떤 식으로든 생각을 정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아버지께 나아가 그것이 괜찮은 계획인지 여쭙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혼자서는 이를 수 없는 기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엘레나 고메즈 데 산투리온, 우루과이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

몰몬경 : 우리 종교의 중석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1985년 11월 10일에 제13대 교회 회장이 되었다. 벤슨 회장은 몰몬경의 힘에 대한 굳건한 간증과 경전을 매일 공부해야 하는 것, 선교 사업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특히 알려져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86년 연차 대회에서 전해졌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현대에 이 세상에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선물은 산업혁명과 기술 혁신에서 얻은 어떠한 발견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현대 의학에서 목격한 수많은 눈부신 발전보다도 더욱 값지며, 비행이나 우주 여행에서 이룩한 진보보다도 인류에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156년 전에 인류에게 전해진 몰몬경이라는 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물은 천 년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숨겨 오셨기에 우리 세대에까지 순수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이 현대 경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으므로, 그에 대한 더 분명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다음과 같이 증거하셨습니다. (1) 그 책은 참되며(교리와 성약 17:6) (2)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고(교리와 성약 19:26) (3) 높은 곳에서 받은 능력으로 번역되었으며(교리와 성약 20:8) (4)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충만함이 실려 있고(교리와 성약 20:9; 42:12) (5) 영감으로 주어져 천사들의 성역으로 확인되었으며(교리와 성약 20:10) (6) 거룩한 다른 경전들이 참됨을 증명하고(교리와 성약 20:11) (7) 신앙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교리와 성약 20:14)

몰몬경의 중요성에 대한 두 번째 강한 증거는 주님이 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그 책을 출현시키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보다 앞서 일어난 유일한 사건은 첫 번째 시험뿐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시험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참된 본성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몬경이 출현한 일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몰몬경이 출현한 시기는 신권이 회복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책은 교회가 조직되기 며칠 전에 출판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의 세 등급, 해의 왕국의 결혼, 또는 죽은 자를 위한 사업 등 위대한



선지자의 간증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책은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구속주를 사랑하는 모든 참된 성도는 그분의 신성에 대한 또 다른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영감 어린 책은 결코 자적이 없는 번역자나 편향된 신학자를 통해 변경이 가해지거나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역사가들과 이를 요약한 사람들의 손에서 직접, 순수한 상태로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책이 아니라 독자입니다.”

President Spencer W. Kimball(1895-1985),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1982), 133.

교리의 윤곽이 계시로 알려지기 전에 먼저 몰몬경을 받아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신권 정월회와 교회 조직에 앞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주님이 이 성스러운 기록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책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해 말씀하신 주님의 엄숙한 경고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으로 몰몬경을 받아들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고(교리와 성약 20:14 참조)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음으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를 거절하는 자는 그것이 돌이켜져 그들 자신의 정죄가 되리니”(교리와 성약 20:15)

1829년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성스러운 것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6:12 참조) 몰몬경은 분명히 성스러운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다시 말해 소홀히 여겨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합니다.

1832년에 몇몇 초기 선교사들이 귀환했을 때, 주님은 그들이 몰몬경을 소홀히 대한 점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한 태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스러운 책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그들에게서 빛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곧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새 성약 곧 몰몬경[을] …… 기억하여 …… 행하기까지 그들은 이 정죄 아래 머물러 있으리니”(교리와 성약 84:54~57)

우리가 한 세기 반이 넘도록 몰몬경과 함께해 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 책의 의미가 그만큼 퇴색해 버렸습니까? 우리는 새 성약, 곧 몰몬경을 기억합니까? 성경에는 구약(Old Testament)과 신약(New Testament)이

있습니다. 언약(testament)이라는 영어는 성약(covenant)이라 번역될 수 있는 히랍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이 몰몬경을 “새 성약”이라 칭하신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책은 참으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언약이자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근에 몰몬경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 덧붙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초기 성도들은 몰몬경을 가볍게 대하여 주님에게서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러한 질책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친히 이 책이 영원한 의미가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이 성스러운 것을 가볍게 여겨서 교회 전체를 저주에 빠뜨리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새 성약을 잇는 것으로 묘사되는 무리에 섞이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서서 면밀히 살피시는 주님의 시선을 대하는 심판대에서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후기 성도가 일생에 걸쳐 몰몬경을 공부해야 하는 세 가지 커다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몰몬경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고 간증했습니다.¹ 종석은 아치형 건축물에서 가운데에 있는 돌입니다. 모든 돌들이 제자리에 위치하도록 잡아 주는 이 돌을 없애면 아치는 무너지고 맙니다.

몰몬경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몰몬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석이며, 우리 교리의 종석이고, 간증의 종석입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에서 종석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물몬경은 분명하고도 힘 있게 주님께서 실재하심을 증거합니다. 수 세기 동안 필기자나 번역자, 부패한 종교인들의 손을 거치며 원본이 손상된 성경과 달리, 물몬경은 단 한 차례, 영감으로 번역되어 저자에게서 독자의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 책에 담긴 주님에 대한 간증은 분명하며, 오염되지 않았고, 권능으로 가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상당수가 구주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적과 같은 주님의 탄생과 완전한 삶, 영화로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물몬경은 그러한 모든 진리를 명백한 말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물몬경에는 또한 속죄에 관한 교리가 가장 완전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처럼 기록하고 영감으로 가득한 이 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종석입니다.²

물몬경은 또한 부활에 관한 교리에서 종석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님은 친히 물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교리와 성약 20:9)이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곳에

물몬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충만한 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가르치기에 어린
아이라도 구원과
승영에 이르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시된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몬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충만한 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가르치기에 어린 아이라도 구원과 승영에 이르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물몬경에는 구원의 교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몬경에 담긴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다른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가르침들은 그토록 명백하고 귀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몬경은 간증의 종석입니다. 종석을 떼어 내면 아치가 무너지듯이 교회의 모든 것은 물몬경의 진실성과 더불어 서거나 무너집니다. 교회의 적대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몬경이 그릇됨을 증명해 내려 합니다. 물몬경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더불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권 열쇠와 계시, 회복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물몬경이 참되다면 회복과 그에 따른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참되다는 증거를 영을 통해 받았다는 간증을 한 사람은 이제 수백만에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물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우리 간증의 종석이고 우리 교리의 종석이며, 우리 주님이시자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의 종석입니다.

우리가 물몬경을 집중하여 연구해야 하는 두 번째 큰 이유는 그것이 우리 시대를 위해 씌어졌기 때문입니다. 니파이인들은 한 번도 그 책을 가져 보지 못했으며, 고대 레이맨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물몬은 니파이인의 문명이 쇠락해 가던 시기에 이 기록을 썼습니다. 태초부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에게서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와 말씀과 사건을 택해 수 세기에 걸친



선지자의 간증

“몰몬경은 다른 어떤 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성스러운 기록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해의 왕국에 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계신 영원한 복음 진리를 그분의 모든 자녀와 나누라고 명하셨습니다. ……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조셉 스미스나 다른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1870~1951), *성도의 빛*, 1984년 11월호, 13~14쪽.

기록을 요약했습니다.

몰몬경을 쓴 주요 기록자들은 저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을 남기노라고 간증했습니다. 니파이의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기록하는 이러한 것들이 간직되고 보존되어, 대대로 나의 자손에게 건네어져 내려가리라 하셨나니”(니파이후서 25:21) 그 뒤를 이은 니파이의 동생 야곱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의 백성의 역사는 그의 다른 판에 새겨져야 하며, 내가 이 판을 보존하여 대대로 나의 후손에게 내려 줄 것이니라”(야곱서 1:3) 이노스와 예이롬 역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했음을 지적했습니다.(이노스서 1:15~16; 예이롬서 1:2 참조)

몰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 너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노니(몰몬서 7:1) 영감에 따라 기록을 남긴 마지막 저자 모로나이는 실제로 우리 시대를 보았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러한 것이 너희 중에 나아올 그 날에 반드시 속히 이를 일에 관하여 크고 기이한 일들을 주께서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노라.”(몰몬서 8:34~35)

그들이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몰몬경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몰몬(또는 모로나이 또는 엘마)에게 이 내용을 기록에 써 넣도록 영감을 주셨을까? 나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이 될 만한 내용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몬경에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유형을 보게 됩니다. 몰몬경 주요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 오시기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씌어졌습니다. 그 시대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서 우리는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서운 심판대에서 멸망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풍요 땅”(제3니파이 11:1 참조)에 있는 성전에 둘러 서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발에 난 상처를 만져 볼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몬경에서 핍박과 배도의 역사를 읽으며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또한 몰몬경에는 물질주의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생기는 위험이 다른 어떤 책에서보다도 더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이 책에서 큰 힘과 위안, 보호를 얻는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몰몬경이 후기 성도에게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미 언급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에 있는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책을 연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몰몬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일상 생활에서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며, 항상 그분 면전에 거하는 듯 느끼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다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몰몬경을 통해 그 바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으로 몰몬경은 진리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진실로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담겨 있으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 있습니다. 몰몬경에서 나오는 힘은 여러분이 그것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혹에 저항할 더 큰 힘을 찾을 것입니다. 속임수를 피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험악하고 좁은 길(니파이전서 8:20)에 머물 힘을 얻을 것입니다. 경전은 '생명의 말씀'(교리와 성약 84:85)이라 불립니다. 몰몬경에 담긴 진리보다 더 참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주리고 목마르기"(마태복음 5:6 참조) 시작할 때,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인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몰몬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받을 축복에 대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몰몬경을 읽는다면 그 위대한 책에 담긴 영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건하고자 하는 정신이 커지며 서로를 더 존중하고 서로에게 더 관심을 기울일

이 책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이 책에서 큰 힘과 위안, 보호를 얻는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것입니다. 다투는 정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는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는 부모의 권고를 더 잘 따르며 순종하게 됩니다. 신앙, 소망,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애가 우리 가정과 생활에 풍성해져서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³

가족이 더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부모 자녀가 서로를 더 존경하고, 영성과 의로움이 커질 것이라는 약속은 허튼 이야기가 아닙니다. 몰몬경이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 조셉 스미스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몰몬경이 자기 자신과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엄숙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제 온 마음을 다해 당부합니다.

십여 년 전에 저는 몰몬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몰몬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영원한 결과가 결정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축복 아니면 정죄, 둘 중 하나입니다.

모든 후기 성도는 몰몬경 연구를 평생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몰몬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의 생애에서 영적 및 지적 조화를 이룰 기회를 놓쳐 버리는 것입니다. 몰몬경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고 쇠막대를 굳게 붙잡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⁴

이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선물을 가볍게 대함으로써 심판과 벌이 따르는 정죄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소중히 새겨 그에 따르는 약속을 얻읍시다.

교리와 성약 84편 54절부터 58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너희 마음이 믿지 않음으로



몰몬경에서
나오는 힘은
여러분이
그것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 것입니다.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을 가벼이
다루었으므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이 허영과 믿지 않음은 온 교회로 하여금 정죄
아래 놓이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정죄는 시온의 자녀 곧 모든 자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새 성약 곧 몰몬경과
내가 그들에게 준 이전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말로써만이 아니라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기까지 그들은 이 정죄 아래 머물러
있으리나-

이는 그들로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시온의 자녀 위에 쏟아질 징계와 심판이 여전히
머물러 있느니라.”

지난 연차 대회 이후로 저는 몰몬경을 읽고
연구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인 전 세계 남녀노소
성도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충실히 노력하여 생활이 변화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기쁨에 넘쳤습니다. 편지에 담긴 그 영화로운
간증들로 저는 몰몬경이 참으로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어떠한 책보다도 ……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깝게 갈 수” 있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영혼 깊은 곳에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몰몬경이 우리 생활의 종석이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철자 및 대문자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

주

1. 몰몬경 소개
2. 몰몬경 표제지 참조
3. Marion G. Romney, “The Book of Mormon,” *Ensign*, May 1980, 67.
4. Ezra Taft Benson, “The Book of Mormon Is the Word of God,”
Ensign, May 1975, 65.

25년 동안

나는 1965년 이후로 교회에서 충실히 생활해
왔지만 특히 1986년에 있었던 한 일을
계기로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이 굳건해졌다.

그 해 10월, 당시 다니던 영국 콘월에 있는
예배당에서 연차 대회 방송을 보았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전해 주신 기념비적인 말씀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을 들은 후에 나는
몰몬경 읽는 방법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밤, 집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다시는
몰몬경을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고 성약을 맺었다.
이제 25년이 지났다. 나는 그 동안 단 하루도
몰몬경을 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주님께
보고드릴 수 있다.

이 결정으로 내가 받은 축복은 셀 수 없다.
몰몬경에는 다른 경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영이 있다. 나는 성신을 가까이 느꼈고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50년을 함께 해 온 아내가 2007년 2월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앨리스테어 조셉 웰시, 스코틀랜드

성스러운 사업

데이비드 에이 페이스

어느 날 저녁, 동반자와 나는 한 청년이 사는 집 문을 두드렸다. 그는 런던에 있는 많은 대학교 중 한 곳에서 공부를 하는 외국인 학생이었다. 청년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이라고 우리 자신을 소개했다. 그가 복음이 회복된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간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스러운 책인 몰몬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기에 성스러운 책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 책이 참됨을 직접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몰몬경 한 권을 주겠다고 했다. 내가 몰몬경을 건네자 그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방에서 나가 버렸다. 몰몬경은 그대로 내 손에 남겨져 있는데 말이다. 나는 동반자와 함께 어찌 해야 할지 몰라하며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탁자 위에 책을 내려놓았다.

이 젊은 친구는 부엌에서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았다. 그리고는 방으로 돌아와 탁자에 놓인 몰몬경을 집어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스러운 것을 만지기 전에 꼭 손을 닦아요.” 처음으로 몰몬경을 펴 보는 이 청년이 깨끗한 손으로 성스러운 책장을 넘기는 것을 보자 눈물이 나왔다.

앨마는 경전은 거룩한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보존되었다고 가르쳤다. 그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모두 받아들이면서 왜 내가 전내는 몰몬경은 받지 않았을까?

아들 힐라맨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권고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게 맡기셨음을 기억하라. 이는 거룩한 것이요, 그가 거룩히 지켜 오신 것이며, 또한 그가 자기 안에 있는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지키고 보존하실 것이니, 이는 장래 세대에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심이니라.”(앨마서 37:14)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선교 사업을 나왔지만, 오히려 나는 손을 깨끗이 한 이 청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많은 문화권에서 경전을 읽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년이 보여 준 소박한 경의의 표현은 몰몬경의 성스러움을 숙연하고도 강렬하게 일깨워 주었다.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진정으로
알고자
한다면

저는 몰몬경에 대해 한없는 감사를
느낍니다. 몰몬경은 제 삶을 영구히
바꿔 놓았으며,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열여덟 살에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종하는 데는 몰몬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줄 새로운 견해를 접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극히 물질주의적인 접근법으로 가르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년여 전쯤에 선교사 두 명이 저희 집에 두고 간 하늘색 책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몰몬경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소책자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그 책과 함께 두고 갔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니파이전서에 있는 몇 구절을 읽었을 뿐인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식으로 알던 것들과 그 느낌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여쭙어 보기도 다짐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제 인생에서 손에 꼽히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몰몬경이 단순한 책이 아닌 그 이상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서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찬 행복감이 차 올랐습니다. 몰몬경은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온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했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그 느낌이 몰몬경이 참됨을 증거하는 영적 증거였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몰몬경이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1. 어떤 이들은 들어서 알게 됩니다. 단순히 몰몬경에 담긴 가르침을 들어서 알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몰몬경에는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주께로 돌이킨”(앨마서 23:5~6 참조) 수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은 몰몬경에 담긴, 그와 똑같은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몰몬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2. 어떤 이들은 읽어서 알게 됩니다. 그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으로 몰몬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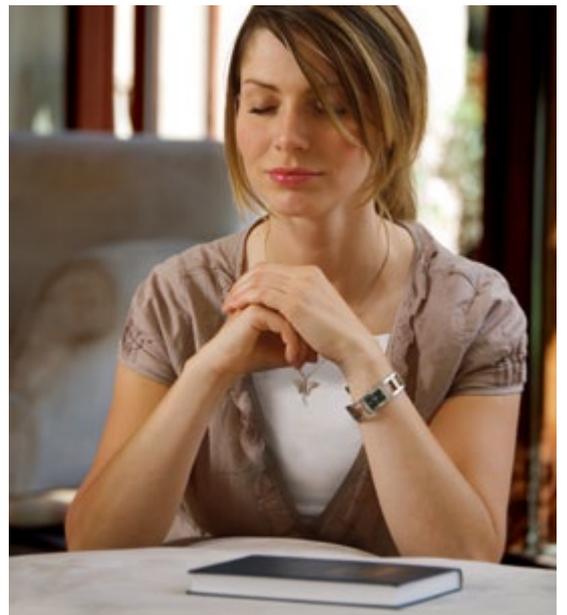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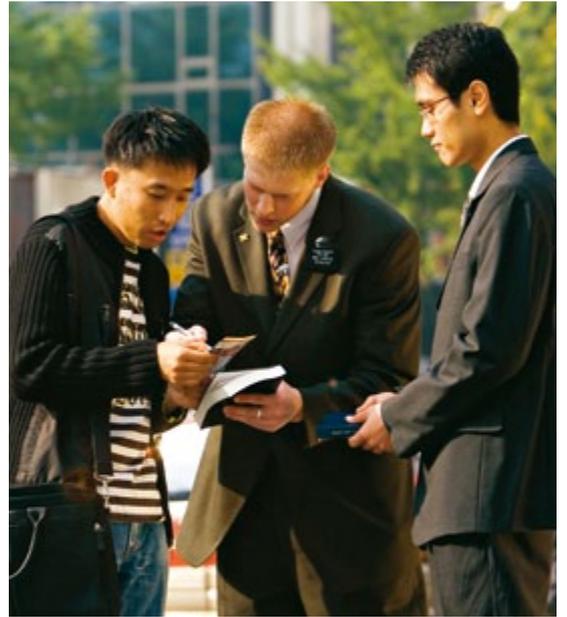


읽어 보며 알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아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열두 살 때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는 권고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권고대로 한 아내는 이 책이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느낌이 매우 강렬했기 때문에 아내는 몰몬경을 읽으며 영원토록 구주를 따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때 그 느낌대로 충실히 남아 있습니다.

3. 어떤 이들은 행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몰몬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써 간증을 얻기도 합니다.(요한복음 7:17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이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한 선지자였습니다. 니파이는 “그들을 더욱 온전히 설득하여 주 그들의 구속주를 믿게 하고자 …… 내가 모든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배움이 되게 하고자 하였음이니라.”(니파이전서 19:23)라고 기록했습니다. 몰몬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비유해 본다면, 혹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도 이 책이 신성한 곳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4.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여쭙어 봄으로써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몰몬경을 읽고 그것이 참된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여쭙어 봄으로써 알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인 모로나이는 진심으로 진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장엄한 약속을 남겼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 너희가 이 기록을 읽게 되거든 ……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모로나이서 10:3~4) 모로나이가 알려 준 대로 몰몬경을 읽고 기도해 보신다면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을 간증합니다.



모로나이가 준 약속

물 문경 끝부분에는 모로나이라는 선지자가 남긴 약속이 나옵니다. 모로나이는 우리가 물문경을 읽고 그 교훈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참된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여 본다면 그분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모로나이서 10:3~5 참조)

개인적인 계시는 각자에게 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갖가지 방법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주어집니다. 다음 원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깊이 생각한다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숙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숙고하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시오. 물문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왜 그런 느낌이 드는가? 책을 읽고 무엇을 배웠는가? 배운 것은 훌륭한가?

주님은 이 원리를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 ……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교리와 성약 9:7~8)

2. 부지런히 기도한다

성신이 건네는 조용한 응답에 생각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려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물문경에서 이노스가 기도를 “하나님 앞[의] …… 씨름”(이노스서 1:2)이라고 말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문경을 읽거나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혹은 기도할 때에는 일정 시간을 정하여 가능한 한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것들이 거의 없게 만드십시오.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도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3. 적절한 질문으로 간구한다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간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를 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을 받는 일에 서투르다면 예, 혹은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간결한 질문을 여쭙는 것이 응답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기도를 향상시키는 비결은 적절하게 간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¹

4. 나의 의도는 무엇인가?

모로나이가 남긴 약속을 성취시킬 열쇠는 바로 우리가 “진정한 의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이신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열네 살 소년인 조셉 스미스가 기도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을 때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의지뿐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의도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 …… 또한 기도 드리기 전,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보였던 충실함을 통해 빛과 진리가 가득한 응답을 받았습니.”²

5.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계시가 극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나 시현으로, 혹은 방문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처럼 조용하고 미세한 무언가를 경험할 것입니다.

교회 제12대 회장이셨던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극적인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흐르는 계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³

주

1. 리처드 지 스코트,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8쪽.
2. 헨리 비 아이어링, “기도”,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8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년), 241쪽.



선지자의 간증

“물문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훌륭한 기록을 읽어 보시도록

권고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책 중 가장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본다면 모로나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됨을 증거하실 것입니다.”(모로나이서 10:4 참조)

President Howard W. Hunter(1907–95),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54.



선지자의 간증

“저는 [물문경을 포함하여 회복된] 진리에 관하여 주님께 가장 강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계시는 아주 오랫동안 강렬하게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제 기억이 온전히 남아 있는 한 이 완전한 지식은 항상 제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President Lorenzo Snow(1814–1901), *Conference Report*, Oct. 1900, 61.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진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라,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느니라”(이더서 3:12) 분입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또 다른 선지자인 엘마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래 세대에게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자기 안에 있는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해 [이 책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제 보라, 한 가지 목적을 그가 이루셨으니, 그 결과 수천 [명이] …… 진리의 지식으로 회복되었느니라. 또 그가 이것들로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으니, 그가 또한 이것들로 장래 세대에게 여전히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그러므로 [이 책은] 보존될 것이니라.”(엘마서 37:18~19)

이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권능이 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으며 주님께서서는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권능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대해 배우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 사실을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이 몰몬경에 담긴 권능을 통해,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몬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책은 그분의 복음이 실제로 회복되었고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려 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몰몬경의 가르침을 듣거나 읽거나 그대로 행하거나 그것이 참된지 알기 위해 기도하거나, 혹은 이 일들을 동시에 해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

나는 어떻게 아는가

나는 아홉 살 때 침례를 받았지만 우리 가족은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하지만 열세 살이 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교회에 오라고 초대했고 나는 그 초대에 응했다. 세미나리에도 참석했다. 교리와 성약 과정이었는데, 내가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이 특히 힘들었다. 하나님을 찾고는 싶었지만 어떻게,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나는 선교사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았다. 세미나리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다른 기독교 종파에 속한 사람들과 나눈 대화도 생각해 보았다. 이따금씩 무엇이 옳은지 알려 달라고 기도해 보았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생각 정도였지 진지한 간구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진정한 의도”로 기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을 알고 싶으며 그분의 참된 교회에 속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이렇게 약속했다. “조셉 스미스가 정말 선지자였는지 그리고 몰몬경이 참된지 알려

주신다면 명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를 따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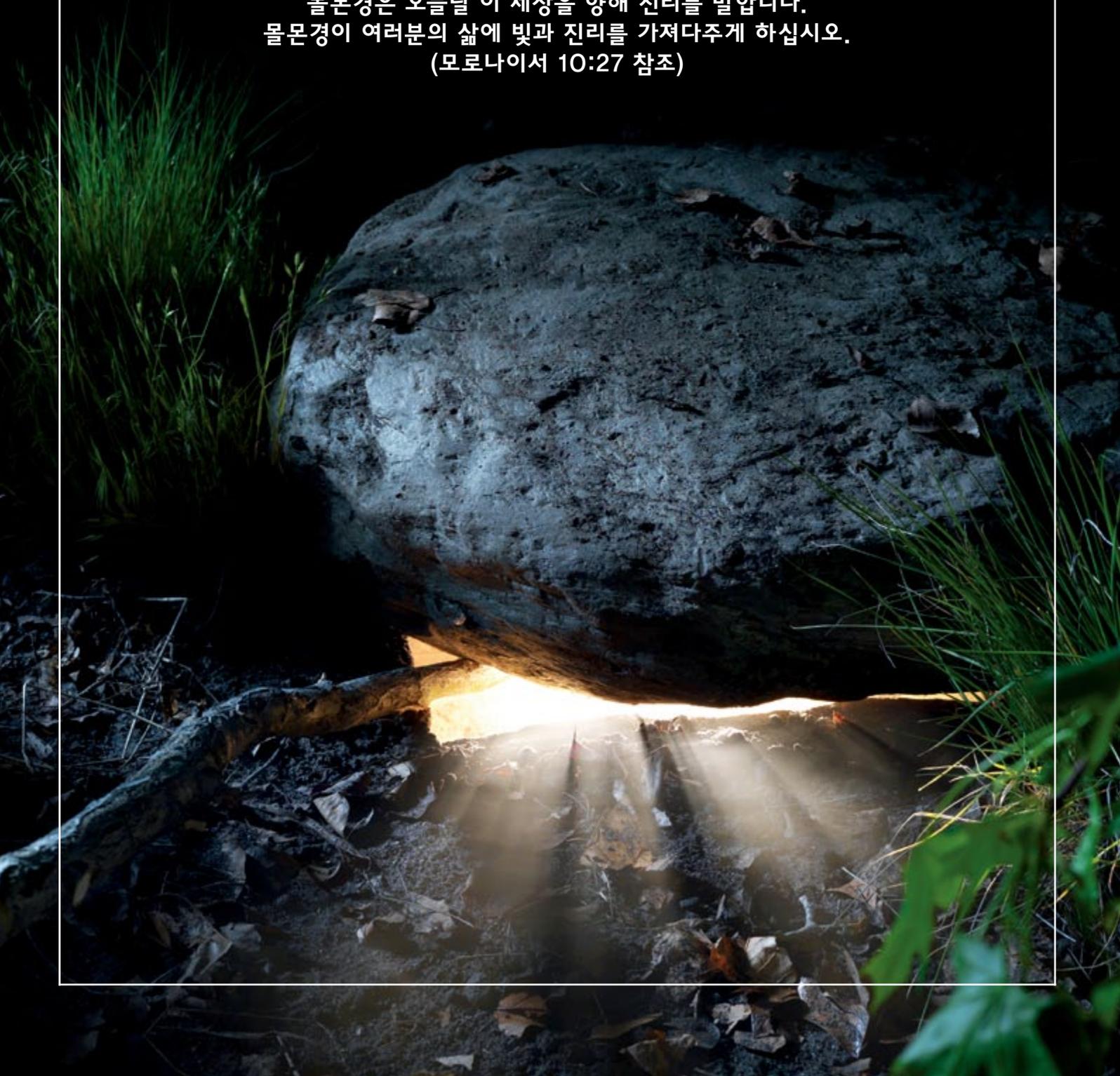
어떤 극적인 시현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었다. 몇 시간 후, 나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생각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몰몬경은 참되니라.” 그런 다음 형언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다. 나는 다시 잠이 들었지만 잠시 후 똑같은 생각과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조셉 스미스가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이것이 구주의 사업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실한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안다.

로돌포 아르멘도 페레즈 보닐라, 엘 살바도르

티끌에서 나는 음성

몰몬경은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해 진리를 말합니다.
몰몬경이 여러분의 삶에 빛과 진리를 가져다주게 하십시오.
(모로나이서 10:27 참조)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

에두아르도는 글 읽는 법을 배운
그날, 몰몬경과 그 책의 힘에 대한
간증을 얻었다.



아내인 마리아와 함께한 에두아르도, 그에게 몰몬경은 글을 깨우치게
해 준 문이 되었다. 에두아르도는 “이 책을 펴고 읽을 때마다 영을
느낍니다.”라고 말한다.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해.’ 할아버지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에두아르도 콘트라라스에게 글을 배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시에서 홀어머니 아래 자란 다섯
자녀 중 하나인 그는 여덟 살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일터로
나가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 했다.

“우리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청년이 되어 시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때까지 에두아르도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구두를 닦고, 벽돌을 만들고, 감자를 캐고, 신문을 파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다.

세월이 흘러 에두아르도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다섯 자녀가 독립을 해 나갈 무렵까지도 그는 글을
몰랐고 배워야겠다는 바람조차 품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후기 성도 선교사들에게 야유를 보내는 동네
꼬마 몇 명을 내쫓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 선교사들을 초대했고, 오래지 않아 에두아르도와 아내인
마리아는 복음 토론을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스페인어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에두아르도는 이렇게 회상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신성한 숲에 있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구주의 모습이 담긴 팸플릿을 보여 주었죠. 저는 그 그림들과
우리가 배운 내용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 선교사들은 곧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봉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스페인어를 쓰는
지역에서 온 선교사가 있었다. 에두아르도와 마리아는 교회
영화 가족은 영원해를 보았는데, 몇 년 전에 딸아이를 잃은
이 부부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막내 아들
오스발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1987년에 침례를 받은 후, 에두아르도는 몰몬경을 읽고
간증을 강화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어떻게 읽기를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아내에게 묻자 마리아는 글씨를 잘
살펴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음 속에서 조합해
보고, 낱말을 발음해 보고, 큰 소리로 읽어 보라고 조언했다.
연습을 하면 언젠가는 읽는 법을 깨우칠 것이라는 격려도
덧붙였다.

당시 마흔다섯이었던 에두아르도는 여러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알았다. 그러나 거의 40년 전에 학교를 그만둔



영감과 힘의 근원

“여러분에게 몰몬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영감과 힘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직 이 순수한 진리의 샘터에서 마음껏 마셔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그렇게 해 보시도록 제 온 마음을 다해 권합니다. 여러분이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꾸준히 몰몬경을 공부하는 것이 결코 이루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Elder Richard G. Scott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The Power of the Book of Mormon in My Life,” *Ensign*, Oct. 1984, 11.

뒤로는 글을 읽어 보려 해 본 적이 없었다.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에두아르도는 집 뒤뜰 그늘에 자리를 잡았다. “자, 이제 해 보는 거야.”

마리아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부엌에서 일을 하던 그녀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다. 에두아르도가 글씨와 낱말을 더듬더듬 소리 내어 읽기 시작한 것이다. “갑자기 빠르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남편이 글을 읽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잘 읽더라고요.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은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읽기 연습에 푹 빠져 있었기에 에두아르도는 자신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읽으면서 “내 안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라고 회고한다. 에두아르도는 놀란 가슴으로 아내를 불렀다. “마리아,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의 영이에요. 당신은 지금 유창하게 읽고 있어요!” 마리아가 대답했다.

그 경험을 떠올리며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에두아르도는 이렇게 말했다. “읽는 법을 배운 그날이 바로 제가 몰몬경과 그 힘에 대한 간증을 얻은 날입니다.”

그 뒤로 에두아르도는 출근하기 전에 새벽 4시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몰몬경을 읽은 후에는 교리와 성약을 읽었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었다. 1987년 이전에는 책이 별로 없었던 에두아르도 집안에 이제는 서재가 생겼다.

에두아르도와 마리아의 복음 지식이 성장하면서 간증도 잇따라 커졌다. 아들인 오스발도가 2001년에 교통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두 사람은 아들과 인봉을 받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에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얻은 강력한 영적 경험과 함께 얻은 간증으로 그러한 상실감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에두아르도는 이렇게 말한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놓아버리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희 아들은 잘 있단다.’ 하고 말하는 고요한 음성을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고, 우리 착한 아들 오스발도가 그리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글을 깨우치며 얻은 빛

워드 회원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에두아르도는 쓰는 법도 터득했다. “전에는 제 이름 서명도 할 줄 몰랐어요.”

글을 깨우치면서 에두아르도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진보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사는 것이죠.” 읽고 쓰는 법을 배움으로써 에두아르도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게 되었으며 또한 배우고 발전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점을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한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새로운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에두아르도 형제는 한때 글 모르는 소년 시절에 팔던 신문도 읽는다. 그 외에도 읽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읽을 수 있다. 특별히 몰몬경을 비롯한 경전은 여전히 그가 좋아하는 책들이다. 에두아르도는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덟 차례 읽었다.

글을 깨우치고 복음을 알게 되어 달라진 삶에 감사하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에게 몰몬경은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몰몬경은 저의 모든 것이었으며, 지금도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몰몬경을 펴고 읽을 때마다 저는 영을 느낍니다.” ■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스물한 살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은 내가 살던 곳인 러시아의 한 지역에서 영어 회화반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 참석했지만, 나중에는 수업이 끝날 때 장로들이 나누는 영적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것을 묻고 싶어서 남아 있게 되었다.

나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믿는 종교 안에서 성장했지만 풀리지 않는 종교적인 의문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선교사들과 그들이 속한 교회 회원들은 내가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 주었다.

유난히 마음에 용기가 가득했던 어느 날, 나는 영어 회화반이 끝나자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몰몬경이란 책을 한 권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는 책을 읽지 않은 채 선반에 그대로 두었다.

그렇다고 몰몬경을 그곳에 오래 내버려 둔 것은 아니다. 영어 회화반에 참석하던 교회 회원들이 의문이 있을 때 경전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되면 선반에 둔 몰몬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곳에는 어김없이 내게 꼭 맞는 답이 있었다.

그 시점에 나는 이 교회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곳이었다. 교회에서 나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여쭙 봄으로써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다. 문제는 당시에



어느 날 저녁에 나는 그나마 독립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엌으로 살짝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 교회가 참된지를 여쭙 보았다.

내가 작은 단칸방으로 된 아파트에서 주인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에 기도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에 나는 그나마 독립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엌으로 살짝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 교회가 참된지를 여쭙 보았다. 그때 응답으로 무척 강한 느낌을 받았고,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침례를 받았다. 교회 회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예전에는 의문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 해답을 안다. 과거에 내 마음은 공허했으나 이제는 충만함으로 가득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답을 주시지 않은 채 우리를 홀로 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그분은 기도와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

올가 오브차렌코, 러시아 스베르들로프스크 오블라스트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

미 국 미시건 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고향 집 옆에 있는 교회 주일 학교에 다니며 성장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셨다.

선생님은 매주 카드를 나눠 주셨다. 카드에는 구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가르치신 원리를 포함하여 그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베푸신 성역에 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매주 그 카드들을 스크랩북에 붙이고 성경에서 그 부분을 찾아 읽었다. 나는 자라면서 계속 신약을 공부했다.

수 년이 지난 1968년 여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이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교회를 더 알아보라는 장로들의 권유를 거절했고, 그 대신 선교사들을 우리 집으로 보냈다.

첫 만남에서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던 교회에서 일어난 “배교하는 일”(데살로니가후서 2:3 참조)에 대해 가르쳤다.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알게 된 것들과 일치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들이 다시 방문해도 될지 물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했다.

다음 방문에서 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후기 성도는 침수하여 침례를 베푸니까? 신권 권능을 믿습니까? 병자의 병 고침을 믿습니까? 선교사들이 들려준 답변은 내가 신약에서 배운 것들을 뒷받침해 주었다. 토론을 끝내면서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

나는 그 책을 텔레비전 위에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어떤 강렬한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나중에야 그것이 성신의 느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몰몬경을 읽어 보라는 영감을 느꼈기에 나는 다시 잠들기 전까지 한 시간 30분 동안 그 책을 읽었다. 얼마 뒤에 나는 똑같은 느낌이 들어 다시 깨어났고, 몰몬경을 좀 더 읽었다.

이런 식으로 이틀 밤을 지냈다. 나는 그 책에서 읽은 내용들이 무척 좋았다. 나는 몰몬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 간구했다. 기도를 마치자 나는 제3니파이 9장에 나오는 레이맨인들의 개종 이야기를 다시 읽어 보아야 한다는 영적인 속삭임을 느꼈다. 그곳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들이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것 같으려니와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20절)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밀려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말로 이 지상에 있구나!’ 나는 내가 읽은 내용과 깨닫게 된 사실들을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나의 질문에 침례를 받으라는 권유로 답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편이 이해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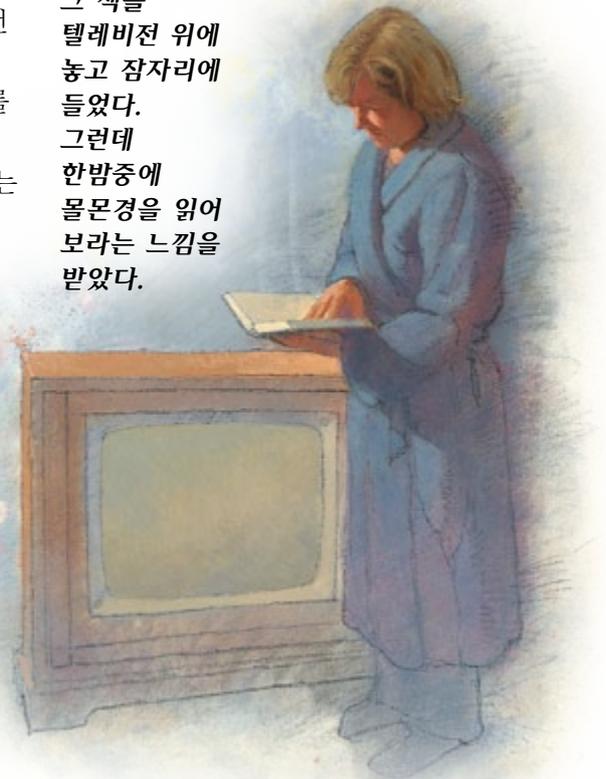
그 성구를 계속 상고했을 때 나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희생으로 바치라는 뚜렷한 지침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했으며, 그분은 나를 도와주셨다. 남편은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했고, 그 후에 내가 침례를 받아도 좋다고 승낙을 해 주었다.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로서 몰몬경을 읽으며 그토록 귀중하고도 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경험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되었다. 1968년에 며칠 밤에 걸쳐 느꼈던 성신의 영향력은 이제 나에게 변하지 않는 은사로서 남아 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 회원으로 살아오면서 나는 성신을 통해 인도를 받아 왔다. ■

클로디아 윌리엄스, 미국 플로리다

**그 책을
텔레비전 위에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몰몬경을 읽어
보라는 느낌을
받았다.**



몰몬경이 내게 말해 주었다

우 리 막내 아이 아만다는 두 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상태가 위중했으므로 화학요법으로도 치료되지 않았다. 딸 아이는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남편과 두 아들은 유타 주에 있는 우리 집에 머물고, 나는 아만다와 함께 9월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다른 주에 머물렀다. 온 가족이 모여 성탄절을 보내고 싶었지만, 추후 치료를 끝내고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검진을 하러 병원에 처음 들렀을 때 의사들은 아만다의 혈액에서 백혈병 세포를 다시 발견했다. 이식 수술이 실패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병원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우리 가족은 수많은 걱정과 일을 감당하고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 왔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우리 딸아이를 잃게 될 상황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두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니파이후서 9장을 읽는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들 위에 내리실 축복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고 영원토록 너희 머리를 들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너희 곧 너희 많은 이가 장차 이를 일을 알고자 많이 탐구하였음을 내가 앎이라. 그런즉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지고 죽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아는 줄 내가 아노라. ……

이는 죽음이 만민에게 임한지라, 위대하신 창조주의 자비로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

오 이 무서운 괴물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을 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냐. 진정 저 괴물은 사망이요 지옥이니 ……

또 그는 만일 사람들이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한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시느니라. 이는 보라, 그가 만인의 고통, 참으로 아담의 가족에 속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 곧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심이라.

또 그가 이를 겪으심은 부활이 만민에게 임하게 하사, 모두가 큰 심판의 날에 그의 앞에 서게 하려 하심이라.”(니파이후서 9:3~4, 6, 10, 21~22)

이 구절을 읽을 때 성신이 온 방을 가득 채웠다. 그날 오후에 들은 그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선지자 야곱이 이천여 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이 마치 그날 내가 받아 보도록 적어 보내 준 말씀 같았고 구주께서 직접 주신 말씀 같았다. 우리 딸이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낀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도 아셨다. 그분은 이미 길을 마련하셨으며, 언젠가는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는” 약속으로 우리 가족을 위로해주셨다.

아만다는 일 년 정도를 더 살았다. 나는 필요한 때에 몰몬경에 담긴 말씀이 내게 전해지고, 주님께서 희망과 위안, 그분의 계획에 대한 이해력을 주셨던 그날을 여전히 기억한다. ■

지나 베어드, 미국 유타 주

이 구절을 읽을 때 성신이 온 방을 가득 채웠다. 그날 오후에 들은 그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로나이의 약속을 시험하다

몇 년 전, 말쑥한 옷차림을 한 두 청년을 만난 곳은 친구 집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라고 소개했다. 이 머나먼 이탈리아까지 와서 구주를 믿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하다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중에 선교사들에게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서 “원하신다면 문화 교류 차원에서 찾아오세요. 하지만 제가 종교를 바꾸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고 말했다.

다음 날 저녁, 우리가 만났을 때 선교사들은 몰몬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낯선 이야기라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들을 또다시 초대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방문 후, 아내인 안나 마리아는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며 우리가 토론하는 동안 자신은 외출을하겠다고 했다. 내 눈에도 선교사들이 약간 평범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말이 궁금해서 만남을 이어갔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온 아내는 우리가 영원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내는 굉장한 흥미를 보였고, 우리는 함께 토론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경전 지식이 풍부한 아내는 늘 질문이 많았다. 장로들은 질문에 바로 답하기도 했고 집에 가서 연구해 오기도 했다. 장로들이 매주 어김 없이 답을 찾아오면 아내도 매주 또 다른 질문들을 쏟아 냈다.

토론을 모두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침례를 받겠다며 허락을 구하는 아내의 모습에 나는 무척 놀랐다. 아내에게 정말로 개종하려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었다. “몰몬경이 참된 책임니까? 그렇다면 언제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995년 3월 5일, 나는 아내의 침례식에 참석했고,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기분을 느꼈다.

나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자료를 읽어 나갔고 선교사들도 꾸준히 나를 격려해 주었다. 마침내 나는 모로나이의 약속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모로나에서 10:4~5 참조) 몰몬경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멋진 소설에 불과한지 알고 싶었다.

1995년 6월, 어느 날 나는 집에 혼자 있는 동안 침대에 누워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었다. “몰몬경이 참된 책임니까? 그렇다면 언제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러자 갑자기 마음과 생각에 또렷한 음성이 느껴졌다. “몰몬경은 참되도다.” 그 순간 침례를 언제 받아야 할지 분명하게 느낌이 들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기도를 드렸더니 똑같은 응답이 왔다. 기쁨에 벅차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몰몬경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며 조셉 스미스는 참으로 선지자였음을 안다.

드디어 1995년 9월 17일, 선교사를 만나기 시작한 지 일 년 반 만에 나는 침례의 물가로 들어섰다. 딸 아바 키아라도 곧 교회에 흥미를 느끼고 침례를 받았다. 1997년 1월, 우리 가족은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선지자와 신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교회임을 안다. 우리를 선교사에게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음에 대해 알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 프란체스코 페라레시, 이탈리아 롬바디

모든 방언과 백성에게

리아 맥클라너한
교회 잡지

물 문경의 선지자 엘마는 백성에 관한 기록을 아들 힐라맨에게 맡기면서 주님께는 경전을 보존하는 “한 현명한 목적”(엘마서 37:12)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엘마는 그 기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간수되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어 내려갈 것이며, 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아[갈] …… 것이라”(엘마서 37:4)

이 기록은 1827년에 조셉 스미스에게 전해졌으며, 조셉은 1829년까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그 기록을 영어로 완역했다. 1830년에 출판된 이 책은 선교 사업에 쓰이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이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다. 하지만 초판 5,000부가 인쇄될 때만 해도 물문경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일은 멀게만 느껴졌을지 모른다.

주님은 1833년에 조셉 스미스에게 그 예언을 다시 확인해 주시며 “모든 사람은 …… 자기 자신의 방언과 자기 자신의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교리와 성약 90:11) 될 때가 오리라고 예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이 실[린]”(교리와 성약 20:9) 물문경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800년대 중반에 선교사들은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다. 1851년에 물문경이 덴마크어로 출판된 이후, 1852년에 프랑스어, 독일어,



물문경 초판은 5,000부가 인쇄되었다.

이탈리아어, 웨일스어로 출판되었다. 현재 물문경 완간 언어는 82개, 특정 부분만 출판된 언어는 25개에 이른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리라는 예언은 번역과 선교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해마다 성취되고 있다.

번역 사업

물문경을 영어에서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때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번역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그 언어를 원어로 사용하는 번역자가 충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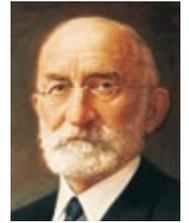
있을 때에야 번역은 시작된다. 번역자와 검토자는 유의할 지침을 받으며, 번역을 할 때 영을 동반할 수 있을 만한 생활을 하도록 지도를 받는다. 번역이 끝나면 신권 지도자들이 별도로 번역문을 검토한다.

출판이 되면 회원들은 배부 센터에서 새 경전을 주문할 수 있다. 새 경전을 받아보는 회원들은 대부분 그 전까지는 물문경 중 특정 부분의 번역본만 가지고 있거나 일부 경우에는 그저 선교사가 전하는 간증에만 의지해야 한다.

물문경과 선교 사업

선교 사업이 처음 조직될 때에는 언어의 장벽이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그 지역 언어로 된 교회 자료가 없는 경우, 선교사들은 언어를 배워서 영으로 간증을 전해야 한다. 전 세계에는 제2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그 언어로 된 물문경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물문경이 몽골어로 번역되기 전까지 몽고에 있던 많은 회원들은 러시아어로 된 물문경을 공부했다.

그러나 그곳 고유어로 전해질 때 복음은 친숙하고



선지자의 간증

“저는 어떻게 지적인 사람들이 백 년 이상 읽어 왔고, 그 기간 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퍼부어진 조롱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견디어 온 몰몬경을 주님의 도움도 없이 어떤 한 사람이 출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인 조셉 스미스가 번역한 그 책은 오늘날 최고의 책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책은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훌륭한 선교사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그 책에 비교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President Heber J. Grant(1856-45), *Gospel Standards, comp. G. Homer Durham*(1941), 15.

명확하게 이해된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선교부에서 봉사한 에릭 켈멀은 회원들과 구도자들이 그곳 고유어로 번역된 몰몬경을 처음으로 받아 보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를 직접 보았다. 슬로베니아어로 된 몰몬경은 에릭이 선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한 지 18개월이 지났을 때에야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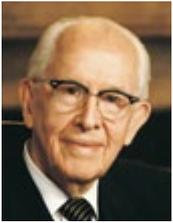
선교 사업은 힘들었다. 첫 번째 지부가 세워진 것은 겨우 10년 전이었고, 슬로베니아가 독립국이 된 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세르보크로아티아어를 정리해 나가던 상황이었다. 선교사들은 젊은이 대부분이 학교에서 배워 온 세르보크로아티아어와 영어로 된 몰몬경을 전했다. 하지만 두 언어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몰몬경을 받지 않으려 했다. 에릭은 몰몬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 간증을 전하고서, 정작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고유어로 된 몰몬경이 없다고 말할 때 느끼는 공허함을 생생히 기억한다. 슬로베니아어 몰몬경은

에릭이 귀환하기 6개월 전에 처음으로 배송되어 도착했다. 지부에서 모임을 할 때 모든 회원과 선교사가 한 부씩 몰몬경을 받았다. “그곳에 특별한 영이 임했습니다.”라는 말로 에릭은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오래 기다려 온 그 소중한 책을 받아 보았을 때 느낀 기분을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마치 금판을 직접 들고 있는 것 같았다.” 모임을 마치고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에 쓰고자 나머지 몰몬경을 가져갔다. 마음이 벅차 오른 에릭과 동반자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상자를 열어 몰몬경을 꺼내고 쪽



번역 사업이 진전되면서 전세계에서 회원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의 레아와 플로라 로트릭과 같은 회원들은 처음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몰몬경을 갖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



선지자의 간증

“몰몬경에서 나오는 힘은 여러분이 그것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혹에 저항할 더 큰 힘을 찾을 것입니다. 속임수를 피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쪽; 또한 본 잡지 52쪽 참조.

번역이 완료되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 회원들에게 요청하여 번역문을 검토한다.

왼쪽부터: 윌터 바릴라스 소토, 마이크 팩, 솔레니 루비 커컬 시에라, 존 브링허스트, 조세피나 쿠컬 티올이 콰테말라 코반에서 케크치어 몰몬경을 검토하고 있다.

늘어놓은 다음,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은 당장이라도 나가서 몰몬경을 전하고 싶었다. 슬로베니아어 몰몬경을 갖게 된 선교사들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저활동 회원들의 간증을 다시 살릴 방법을 찾게 되었다.

선교 사업에서 마지막 6개월 동안 에릭은 슬로베니아 회원들의 간증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고유어로 번역된 몰몬경을 갖게 되자 회원들은 정말로 몰몬경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모임에서 연사들과 교사들이 경전을 세르보크로아티아어로 먼저 읽고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

통역을 하고 설명해야 했다. “다른 언어를 거쳐 의미를 전달하다 보니 뭔가 활기가 없는 듯 느껴졌습니다.” 에릭은 회원들이 자신이 쓰는 언어로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즉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자기 자신의 방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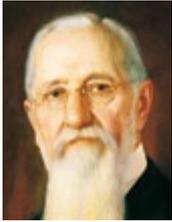
모카 젤레즈니카르는 슬로베니아어 몰몬경이 나오기 전 시기에 슬로베니아에서 개종했다. 그녀는 크로아티아어와 영어로 선교사들의 간증을 듣고 몰몬경을 공부하면서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웠다. 슬로베니아어 몰몬경 번역이 끝나자 모카는 고유어로 된 번역문을 읽고 말씀에서 힘을 느꼈다. 모카는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진리가 제 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꼈어요.”라고 회상한다. “어머니께서 제게 사용하시던 그 언어로 창조주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계 곳곳에서 회원들은 자신의 언어로 된 몰몬경을 받으면서 이와 비슷한 느낌을 경험한다. 과테말라와 벨리즈 지역에 사는 마야 사람들은 케크치어를 사용한다. 2003년에 몰몬경을 케크치어로 번역한 번역자들은 현지 회원들과 함께 번역문을 검토했다. 한 번역자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는 개척자인 그 회원들과 세나후 예배당에 모여 낭독을 했습니다. 성구를 읽을 때마다 경건한 침묵이 방을 감쌌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아주 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엘비라 트지 자매는 케크치어 몰몬경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 그 번역된 책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축복을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몰몬경이 번역됨에 따라 젊은 회원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선지자의 간증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 책(물문경)이 처음에 씌어진 언어를, 다시 말하면 금판 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이 책의 표지 안에 있는 언어로 번역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총만하고 영원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음으로써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의 영광과 영생을 취하게 할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년), 42쪽.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 회원들이 물문경을 자신의 언어로 공부하는 것은 한량없는 축복을 얻는 근원이 된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씀했다. 회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 내용을 배우고 가르칠 때 간증이 강화되고, 지식은 증가하며, 가족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봉사하는 능력이 확대되고, 유혹에 저항하여 진리와 의를 수호하는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¹

널리 파급되는 축복

물문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오는 풍성한 축복은 이 경전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낳는다.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매년 전 세계로 보급되는, 100여 개가 넘는 언어로 된 물문경 약

400만 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과 함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하고 있다. 물문경이 지구촌에 퍼져 나가면서 고대에 선지자 엘마가 말한 “현명한 목적”은 이 변화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 ■

주 1. 제일회장단 서신, 2008년 10월 15일.

다양한 형식의 물문경

물문경은 종이로 인쇄된 책과 같은 형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인터넷 및 모바일 형식

현재 물문경을 인터넷(scriptures.lds.org)과 모바일 기기(mobile.lds.org)에서 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21개어가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는 전후참조와 검색이 가능하여 색다른 방법으로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해를 새로이 할 수 있다.

오디오 형식

현재 오디오 형식으로 된 물문경은 영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있다. 여러분은

scriptures.lds.org에서 녹음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배부 센터(store.lds.org)를 통해 CD를 구매할 수도 있다. 각치켈어, 맘어,

나바호어, 키체어, 초칠어로 물문경 일부만 번역된 오디오카세트도 구할 수 있다. 오디오 형식으로 된 다른 언어 물문경은 현재 제작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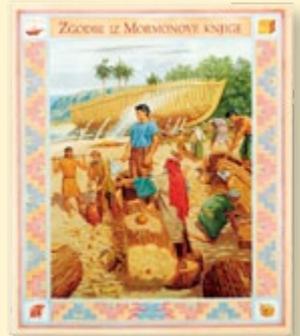
다른 형식

천연색 그림을 넣고 본문을 단순화하여 삽입한 물문경 이야기는 글을 배우는 이들에게 시각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이 책은 70여 개 언어로 출판되어 있다.

물문경 이야기는 또한

scripturestories.lds.org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또한 배부 센터를 통해 미국 수화로 된 DVD 세트, 큰 활자 경전(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 점자 경전을 구할 수 있다.



원문: 위: 사진 촬영: 부시스 포토그래피, 아래: 사진 촬영: 토드 웨리스

몰몬경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



몰몬경이란 무엇이며 성경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나요?

몰몬경은 성경과 같은 종류의 경전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¹ 성경은 주로 고대 이스라엘인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편 몰몬경은 기원전 600년에 예루살렘을 떠난 한 가족을 포함하여 미대륙으로 건너간 몇몇 무리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성경과 몰몬경은 전통이 같은 사람들이 지구의 서로 다른 곳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과 마찬가지로 몰몬경 역시 단순한 역사 기록은 아닙니다. 몰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교리와 성약 20:9)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르침과 교리, 예언이 실려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부활하신 후 이 [미]대륙에 나타나셨으며, 그분의 복음을 충만하고 풍요로우며 권능과 축복이 담긴 상태로 이곳에 심어 놓으셨고 이 대륙에도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가 있었으며 동반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차, 신권, 의식, 은사, 권능,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 그들 가운데에 있던 선지자들 중 마지막 선지자는 명령을

친구든 가족이든, 진심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서든, 아니면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들에게서든 우리는 몰몬경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에 소개하는 몇몇 대답을 활용할 수 있다.



받고 모든 예언과 역사를 요약하여 땅에 숨겼으며, 이 기록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 성경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²

교회 회원들은 성경과 몰몬경을 모두 공부합니다. 실제로 4년으로 구성된 교회 주일학교 교과 과정 중에서 2년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더 알아보고 싶다면 16쪽, 24쪽, 52쪽에서 이 주제에 관한 내용을 참조한다.)

누가 몰몬경을 기록했나요?

니파이, 야곱, 몰몬, 몰몬의 아들인 모로나이와 같은 고대 선지자들이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몰몬은



선지자들이 간직해 온 역사, 예언, 가르침에 관한 기록을 모아 요약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도 기록했습니다. 물몬은 이 기록을 한데 묶어 금빛 금속판, 즉 보통으로 금판이라 부르는 낱장에 새겼습니다.

물몬이 죽자 모로나이가 기록을 마무리하여 현대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산에 묻었습니다. 1823년에 모로나이는 천사로서 조셉에게 나타나 기록이 묻힌 곳을 보여 주었습니다. 4년 후에 조셉은 그 기록을 꺼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그리하여 그는 고대 언어로 된 그 기록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 [영어로] 번역했습니다.”³ 그리고 나서 조셉 스미스는 물몬경을 출판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더 알아보고 싶다면 22쪽과 72쪽에서 이 주제에 관한 내용을 참조한다.)

그 외 어떤 사람들이 금판을 보았나요?

원본인 금판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조셉 스미스는 1827년 9월에 판을 가져와 1829년 봄까지 보관했습니다. 1838년에 조셉은 지난 일들을 기록한 글에서 금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약속된 대로 [모로나이] 사자가 이를 가지러 왔을 때 나는 그것들을 그에게 넘겨주었고, 일천팔백삼십팔년 오월 이일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를 간직하고 있다.”(조셉 스미스-역사 1:60)

그 외 어떤 사람들이 금판을 보았나요?

조셉 스미스 외에도 판을 보고 그 존재를 증거한 형제 자매들이 더 있습니다. 그중 특히 세 증인과 여덟 증인으로 알려진 열한 명은 판을 보고서 이에 대한 간증을 기록했으며, 여덟 증인은 판을 만져 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물몬경 앞 부분에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단언한 대로 그들이 그토록



물몬경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중 몇몇이 “한때 조셉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며 판을 만져 보았다는 사실을 숨을 거둘 때까지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느니라.’ 또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이 참된 줄 분명히 아노라.’”⁴

물몬경이 참되다는 물질적인 증거가 있나요?

신앙의 근거를 물질적인 증거에 두지는 않지만 물몬경이 참되다는 언어학적,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몰몬경을 금속판에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 비웃음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최근, 금속판에 기록된 수많은 성스러운 기록이 발견된 바 있으며 어떤 것은 돌로 된 상자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몰몬경에 나오는 단어와 문구들이 영어로는 어색하게 들리지만, 조셉 스미스라는 청년이 알지 못했던 언어, 즉 히브리어와 몰몬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관련 언어들은 지극히 앞뒤가 맞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종류의 증거들로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몰몬경의 참됨에 관한 것은 신앙과 개인적인 계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몰몬경이 진리라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몰몬경 마지막 장에는 누구든지 그 기록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고, 진정으로 그 책이 참된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여쭙어 보라는 권유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따른다면 성신의 권능으로 이 책이 참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모로나이서 10:3~5 참조) 수백만에 이르는 이 교회의 회원들은 직접 기도해 보았으며 성신께서 주신 증거로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압니다.(더 알아보고 싶다면 4, 60, 80쪽에서 이 주제에 관해 참조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8~1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는 구절이 나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믿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몰몬경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몇 가지 언어로 인터넷에 실려 있는 풍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몰몬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몰몬경을 인터넷으로 읽고 싶다면 script.lds.org/bm에 접속하십시오.
- 몰몬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질문하고, 선교사들과 인터넷으로 대화해 보고 싶다면 mormon.org/book-of-mormon에 접속하십시오.
- 몰몬경을 무료로 받아보려면 mormon.org/free-book-of-mormon에 접속하십시오.
- 더 많은 정보와 기사와 설명을 보고 싶다면 lds.org/study/topics/book-of-mormon?lang=eng를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항상 자녀들에게 알려 주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혹은 앞으로 주실 모든 계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에베소서 2:20 참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기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기 300년에 이르러서야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 칭하는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4장 2절에도 그와 같이 모세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구약 초반부에 나오는 이 구절이 나머지 기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요한도 아직 있지도 않은 기록을 변경하지 말라고 당부했을 리 없습니다. 이는 그저 복음의 참된 가르침을 변경하는 행위를 경고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충만함이 담긴
물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건고히 합니다.(더 알아보고
싶다면 24쪽과 38쪽에서 이
주제에 관해 찾아보다.)

**물몬경이 처음 출판된
이래로 책을 변경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으며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물몬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출판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판을 번역할 때, 조셉
스미스는 서기에게 단어들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들은
조셉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때때로 철자나 문법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를
들면 니파이전서 7장
20절에 나오는 “were
sorrowful(슬퍼하여)”이라는
단어를 “ware sarraful”로
받아 적었습니다. 서기들이
받은 교육이 부족했기도
했지만 당시는 철자법이
표준화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2. 그런 다음, 손으로 쓴



물몬경이 참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번역 필사본을 베껴 적어
인쇄용으로 필사본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철자와 문법 오류는 어느
정도 바로 잡혔으며 구두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단어를 잘못
베껴서 또 다른 오류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3. 인쇄공은 활자를
정확히 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또
다른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를 들어, 엘마서 57장
25절에서 “joy(기쁨)”란
단어를 잘못 보는 바람에
그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foes(적군들)”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4.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처음 인쇄된 물몬경 세 권을
주의 깊게 살폈고, 끊임없이
책을 다듬고 교정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실수들은 그 다음 판들이
인쇄될 때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쇄공의 실수로
생긴 엘마서 16장 5절에
있던 한 오류는 1981년에야
수정되어 “whether”를
“whiter”로 바꿈으로써
선지자가 금판에서 처음
번역했던 필사본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5. 그 밖에 장과 절 사이를
끊기도 하고, 상호 참조할
수 있는 각주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물몬경을 전하십시오

물몬경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책 자체가
스스로를 가장 잘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물몬경에 대해 간증하고,
나눠 주고, 사람들에게
그 책에 관해 직접 기도해
보라며 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순수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물몬경이 참된지
알고자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그 사람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실]”(모로나이서
10:4) 것입니다.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물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1쪽을 참조한다.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64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60쪽.
4. 제프리 알 홀런드, “영혼의 안전”,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90쪽.



간증, 성약, 그리고 증인

저는 젊은 시절에 몰몬경을 읽고서 구주와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 대한 거룩한 확증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이 성스러운 기록을 읽던 중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는, 부인할 수 없는 성신의 속삭임을 반복해서 느꼈습니다.

몰몬경은 제 삶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이시며, 영원한 행복의 계획이 저를 위해 마련되었다는 영적인 확신을 얻은 근원이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통해 성경과 다른 표준 경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몰몬경은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자비로운 동정심을 깨닫고, 그분께서 치르신 속죄 희생이 얼마나 은혜롭고 장엄한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몰몬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 주는 참된 증거, 즉 또 하나의 성약이자 새 언약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현재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회복된 초기 시대에 사셨던 저의 선조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악한 사람도 이와 같은 책을 썼을 리 만무하다. 그가 선한 사람이라 해도 이 책을 쓰는 일은 불가능하다. 책 자체가 참되며 또한 그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명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¹

그렇게 처음으로 확신하게 된 이후, 기운을 북돋아 주는 순간들과 저를 정화시켜 주는 시현들이 더해졌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매일 살아가는 제 삶과 삶의 목적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 간증의 단단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랫의 형제와 함께 향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냐민 왕이 전한 성스러운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몰몬경은
미대륙에서 전
세계로 전파된
새로운 성약이자
새 언약임을
간증합니다.

니파이인 무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를 만져 보지도 못했으며, 몰몬과 모로나이 곁에서 몰락하는 문명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에 대한 저의 간증은 그 사람들만큼이나 확실하며, 이 책이 인간의 마음에 주는 평화, 즉 여러분에게 그랬듯이 저에게도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 전해진 바로 그 평화는 그 시대만큼이나 명백합니다. 저는 이 책이 참되다는 사실을 세 증인과 함께 모로나이 천사를 본 듯이, 혹은 여덟 증인과 함께 금판을 보고 만져 보았 듯이 분명하게 간증드립니다.

이에 덧붙여, 저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몰몬경과 그것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후기의 사업을 행함에 충만한 신앙을 지니지 못하며, 그럼으로써 이 시대에 가장 완전한 평화와 위안을 찾게 되지는 못하리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어느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몰몬이 모로나이에게 말했듯이 저도 이 환난의 시기에 여러분께 이러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라. …… 또 그 보좌가 하늘 높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 그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계시고 또 거하시기를 원하노라.”(모로나이서 9:25~26)

몰몬경은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남기신, 위대한 마지막 성약이 성스럽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 책은 미대륙에서 전 세계로 전해진 새로운 성약이자 새 언약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빛에 의지해 건승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위대함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그분을 증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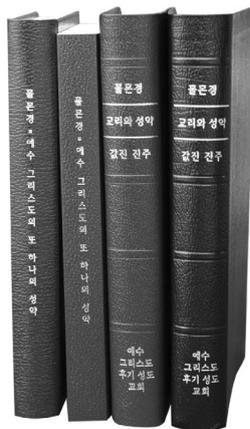
1. George Cannon, quoted in “The Twelve Apostles,” in Andrew Jenson, ed., *The Historical record*, 6:175.



지역 소식

몰몬경 특집 기사

참된 하나님의 책



몰몬경 특집호를 맞아 지역 소식에서도 몰몬경 관련 기사를 준비했다. 그 첫 번째는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제공한 몰몬경 번역에 대한 기사이다. 여러 자료와 고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상세한 몰몬경 번역 과정을 전하는 이 기사는 앞으로 석 달에 걸쳐 연재될 것이다. 이 기사 속에는 김호직 박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신권 지도자들이 한국어 몰몬경을 출판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간증이 들어 있다.

또한 두 번째 특집 기사는 회원들의 몰몬경 간증이다. 몰몬경을 통해 개종한 이야기, 몰몬경을 읽고 재활동화 된 이야기 등 저마다의 간증 속에는 몰몬경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들어 있다. 간증을 나눈 이들은 한 목소리로 몰몬경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말한다. 이 작은 책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지를 간증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특집호 이후에도 몰몬경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계속 모집하여 한국 교회 웹사이트 (lds.or.kr)를 통해 꾸준히 소개할 계획이다. 자신의 간증을 보내고 싶은 독자는 aron1979@hanmail.net로 간증과 사진을 보내거나 02)2232-1441(내선: 564)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국어판 몰몬경, 희생과 노력의 결실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 한인상 장로가 젊은 시절에 선교 사업을 하면서 불굴의 노력을 통해 몰몬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한인상 장로는 1964년 2월부터 1966년 2월까지 한국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한 장로는 1965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간염을 치료하면서 몰몬경의 대부분을 부산 동구 지부에서 번역했다. 한 장로가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도 색인과 상호 참조를 만들고 출판과 인쇄 상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해가 필요했다. 드디어 1967년 4월에 몰몬경이 출판되었다. 몰몬경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재인쇄가 되었으며 1992년에는 그 수가 백만 권을 넘어섰다. 새로이 개정된 몰몬경은 2005년에 출판되었으며 현재 한국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 몰몬경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몰몬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려는 노력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기원이 김호직 박사에 이르게 된다. 김 형제는 코넬 대학교에 유학 중이던 1951년 7월에 개종했다.¹ 그는 그 해 9월에 귀국했고 부산에서 미군들의 영향으로 개종한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합류했다. 김 형제는 1953년에 빨기세탁 신권에 성임 되었으며, 1955년에 한국 지방부 회장으로 성별 되었다. 한국어로 된 교회 관련 책자가 전무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김 형제는 선교사들이 한국인들과 만나 전도할 때 사용할 소책자와 유인물을 번역하고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한국어로 된 성경은 있었으나 후기 성도 경전은 없었다.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둔 북극동 선교부의 회장이로서 당시 새로이 부름 받았던 폴 앤드리스 회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1956년 2월에 김호직 박사가 도쿄에서 열린 유네스코 지역 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2월 29일 수요일, 로버트 슬로버 회장(미군 지방부 회장 겸 책임자)과 내가 김 회장이 묵고 있던 호텔로 찾아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이 묵을 적절한 숙소를 4월까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으며, 저는 그때까지 선교사들을 파견할 준비를 마치겠다고 그분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셉 스미스의 간증’ 소책자 번역을 이미 마친 상태라 서울에서 소책자를 출판하자는 데에 합의를 했으며, 김호직 박사에게 번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탈매지 박사의 신앙 개조를 번역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²

1956년 4월 20일, 일본에서 온 돈 포웰 장로와 리차드 테튼 장로가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 그 뒤로 몇 달 사이에 선교사가 더 도착하여 선교사 수가 9명으로 늘었으며, 9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이영범 형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선교사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1957년 1월 25일에 서울을 방문한

앤드리스 회장은 인쇄기를 가지고 왔다.³ 1957년 3월, 번역 담당에 장세천 형제, 타자 담당에 이정순 자매, 인쇄 담당에 정대관 형제로 하여 한국 지방부 번역실이 조직되었다.⁴ 김 박사와 장세천 형제가 몰몬경 번역에 착수한 때가 바로 이때였다. 1957년 5월 6일, 폴 앤드리스 선교부 회장은 장세천 형제를 몰몬경 번역자로, 김 형제를 번역 감독자로 공식적으로 성별했다.⁵ 장 형제는 일본어 몰몬경과 영어 몰몬경을 참고로 하여 번역을 시작했다. 일본어에 능통했던 장 형제에게는 영어 몰몬경만 보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일이 쉬웠다. 그러나 장 형제가 1959년에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브리검 영 대학교로 유학을 가면서 번역 작업은 중단되었다.

그 즈음 홍병식 형제가 군 복무를 마치고, 김호직 박사의 요청에 따라 번역 작업을 이어받았다. 지방부 회장으로 새로 부름 받은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는 홍 형제를 몰몬경 번역자로 성별하라는 지시를 제일회장단에게서 받았으며, 1959년 8월 23일에 성별했다.⁶ 홍 형제는 이 부름을 받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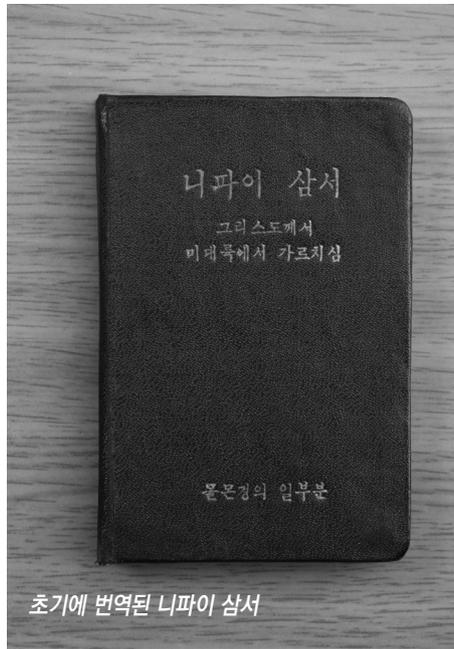
“실제적인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번역을 어떤 스타일로 해야 할지에 관해 김 박사님과 긴밀히 상의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호남 형제님과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번역에 관해 장시간 논의하고 여러 번 기도로 간구한 끝에 우리는 킹 제임스 성경

스타일로 번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킹 제임스 성경과 그 경건한 문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⁷

김 형제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인 1959년 8월 31일에 세상을 떠났다. 홍 형제는 번역을 계속하여 지금은 고인이 된 아내, 이정순 자매를 서기로 두고, 일본어와 영어를 다 구사하는 장점을 살려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들여 번역을 했다.⁸ 1961년 초에 홍 형제는 번역을 끝냈다.

이영범 형제와 이호남 형제가 교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음에 도움을 주다가 1961년 11월에 이인순 형제와 와델 장로, 브루스 그랜트 장로가 위원회에 합류하여 힘든 교정 작업을 주로 도맡아 했다. 이인순 형제는 개종할 때 영어 몰몬경을 깊이 공부했던 회원이었다. 그는 개종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두 미국인 선교사 포웰 장로와 데튼 장로가 일본을 떠나 한국에 도착했던 1956년 4월에 저는 교회에 처음으로 참석했고, 우리는 통역자인 홍병식 형제와 함께 작은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게일이 카 장로가 일본에서 도착했습니다. 얼마 후 포웰 장로와 데튼 장로가 귀국했고 우리는 카 장로와 김불 장로와 함께 작은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 카 장로는 파란색 표지로 된 영어 몰몬경을 제게 주면서 침례 받기 전에 모두 읽어 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은



일에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듯 저는 읽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영어 몰몬경을 눈 여겨 보면서 감히 영어 몰몬경을 전부 읽어보겠다는 말을 어떻게 꺼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 장로가 제게 침례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 힘든 일을 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읽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영한 사전을 옆에 두고 영어 몰몬경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책을 가져다가 한 장을 세 겹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줄마다 첫째 열에는 모르는 영어 단어를 적고, 둘째 열에는 발음 기호를 적고, 셋째 열에는 그 의미를 한국어로 적었습니다. 3주 만에 몰몬경을 다 읽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신입생이었고 중학교 시절부터 내내 영어 과목에서 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저는 영어 몰몬경을 다 읽었다고 카 장로에게 말하면서 공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다 읽었다는 사실을

카 장로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때는 11월이었고 날씨는 이미 아주 추웠습니다. 그 때 카 장로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연못이나 강에서 침례를 줄 수도 없고, 공중 목욕탕에서 침례를 주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고, 개인 주택 욕조는 너무 작고 낮아서 형제님을 침례 주려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고, 카 장로는 제게 침례를 주려는 의사가 없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날씨가 추워도 한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고 카 장로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강에 가니 너무 춥고 바람이 강했고, 강가에는 강물이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동생 이정순 자매는 카 장로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서 얼어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해 홍병식 형제는 내 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⁹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이 기사는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주

1. 내 양을 먹이라, 김호직 박사의 생애와 업적, 한국번역 출판사, 2002년 24쪽.
2. Church Beginnings in Korea 1955-1962 Part One-A, Paul Andrus, 2007. <http://www.moromon.org/returnedmissionariesandrus4.htm>
3. Church Beginnings in Korea 1955-1962 Part One-B, Paul Andrus, 2007.
4. Korean Church 50 Year History Opens the Future, 2005, 135쪽.
5. 같은 책, 137쪽.
6. 같은 책.
7. 홍병식 형제가 로널드 케이 닐슨 형제에게 보낸 이메일, 2011년 1월 10일.
8. 같은 책.
9. 이인순 형제가 로널드 케이 닐슨 형제에게 보낸 이메일, 2011년 1월 16일.

내 인생의 몰몬경

몰몬경을 다시 읽으며

나는 4월부터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경전 읽기를 멈출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과에 가는 것을 미뤘다. 점차적으로 내 영성과 일상에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약해지고 이해력이 저하되었다. 몰몬경을 통해서 원리를 찾고 적용하는 과정이 없어지다 보니 나는 서서히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 답답함은 곧 나의 성품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초조하고

쓰기 싫었던 돋보기안경을 착용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밀쳐 놓았던 몰몬경을 다시 펼쳤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 지면서 불안과 초조와 조바심들이 씻겨 나갔다. 그 후로 내 삶은 좀 더 향상 되었으며 온전한 행복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또 다시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 경전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들에 대하여 나는 생각한다.

나는 몰몬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침례 토론을 받았다. 나는 비록 어렸지만, 사랑이 많은 잘 준비된 선교사님들 덕분에 토론을 하면서 지금 가르침 받고 있는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선교사님들은 몰몬경을 주면서 이것을 읽고 기도해 보겠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집에서 열심히 경전을 읽었다. 그리고 1999년 3월 13일 침례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내 신앙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가정 형편은 어려워졌고, 부모님의 사이도 좋지 않아 매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던 중에 복음을 알게 해 준 친구는 지방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단짝 없이 교회에 나오려니 심심하고 외로웠던 나는 교회와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나는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덕분에인지, 우리 집은 짧은 시간 동안 기적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사이도 좋아져서 화평이 넘치게 되었다.

대입 재수를 하던 어느 일요일에 나는 여느 때처럼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던 몰몬경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침례 토론을 할 때 선교사님이 선물해 준 바로 그 몰몬경이었다. 조심스럽게 펼쳐서 책장을 넘기다가 내가 색연필로 표시해 두었던 구절인 엘마서 32장 21절을 발견했다. “또 이제 내가 신앙에 관하여 말한 것같이-신앙이란



김삼순 자매

불안하고, 그리고 포용력과 사랑, 온유함과 배려심도 상실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꺼져 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내가 몰몬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서둘러 안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그토록

지침과 원리이지만 그 단순함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 김삼순 자매〉

책상 위의 몰몬경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영어 회화 수업은 두 번만 듣고 바로



박은영 자매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 그 구절을 읽었을 때 내 가슴은 뜨거워졌고,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 신앙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다. 나는 그 다음 주 안식일부터 교회에 참석하여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 내가 잃어버렸던 성신의 느낌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몰몬경 때문이었다. 나는 몰몬경을 상고할 때 주님의 영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박은영 자매〉

즐거운 몰몬경 읽기

나는 이번 EFY를 통해서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몰몬경을 제대로 읽어 본 적이 없었다. 청년가 되어서 스테이크 청년 회장단에서 계획한 몰몬경 읽기를 완수해보았지만 그것은 몰몬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닌 목적 달성을 위한 단순한 글자 읽기였다. 그런데 이번 EFY를 통해서 배움의 중요성을, 특히 경전을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FY 기간 중에 몸과 마음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몰몬경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EFY 기간 중 우연히 펼쳐 읽게 되었던 니파이후서 32장 3절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하였노니,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는 내가 무엇 때문에 몰몬경을 읽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해 주었다. EFY의 마지막 날 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매일 몰몬경을 읽고 있다. 마음속으로 결심한 분량을 읽을 때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활기차졌다. 몰몬경을 읽는 시간이 이렇게 재미있고 즐겁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몰몬경의 축복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나는 몰몬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느낀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종석이라는 사실을

정경아 자매



간증한다.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정경아 자매〉

몰몬경으로 변화된 삶

내게는 선교 사업 부름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다. 그것이 늦어지는 데에는 여러 사건이 있었고, 그 결과 많은 시련이 뒤따랐다. 불신의 마음이 들었으며 실망과 불평, 그리고 이기심이 내 마음을 감싸며 선교 사업을 결심했을 때의 간증이 서서히 식어 갔다. 그 시기에도 나는 습관처럼 몰몬경을 조금씩이나마 읽고 있었지만 감동을 받거나 영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읽어만 갔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 가난해졌다. 나는 더욱 슬퍼졌고 우울했다. 나는 제발 이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답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럴 때에 청년 대회가 열렸고, 나는 그저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기에 그 모임에 참석을 했다. 그런데 첫날부터 변화가 왔다. 대대장 형제님은 하루 열기 모임 시간에 행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을 준비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하겠다고 말을 했고, 당황함도 잠시, 가슴 한 구석 예전에 물몬경을 읽으며 스쳐 지나갔던 구절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즐거웠던 추억들, 무엇보다 사랑하는 동생과 어머니가 생각났다. 행복하고 편안했다. 나는 물몬경 구절들을 다시 찾아 보았다. 내가 최근에 읽었던 엘마서의 구절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자유와 대의를 위해 작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결의를 다졌던 니파이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정말 영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았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겪게 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나는 니파이인들처럼 주님께 의지하며 내 결심을 확고히 해봤던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그리고 주님의 사업,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 강한 신앙을 발휘했던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펐지만 강한 희망 또한 함께했고 주님의 큰 사랑을 느꼈다. 다음날 하루 열기에서 내 간증과 준비했던 토론을 나누면서 나는 영을 느낄 수 있었고 행복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물몬경을 읽으려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려 노력했을 때도 영이 함께 하였다. 그리고 선교 사업에 대한 더욱 확고한 간증과 물몬경에 대한 간증이 생겼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 물몬경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전해 주며 그분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이다.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 신현범 형제〉

물몬경을 상고하며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가족 경전 읽기와 물몬경 이야기 등이 너무나 익숙한 회인 자녀다. 그 때문에 스스로 물몬경의 필요성과 중요함, 그리고 간절함을 느끼기가 힘들었다. 물몬경을 다 읽고 닳을 때 주님의 영이 매우 크게 다가왔다는 개종자들의 경험을 나는 할 수 없었기에 낙담했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경험을 한 회원들이 부러웠다. 그들의 믿음이 부러웠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부러웠다.

그러던 중에 불교를 믿는 친구 중 한 명이 불경 한 절 읽고 절하고, 또 한 절을 읽고 절하면서 불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나도 간절히 기도 드리며



김선하 자매

내게도 주님의 큰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나는 단순히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닌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느낌에 따라 물몬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 이름을 넣어서 읽고, 전후로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읽어가면서 어느새 물몬경이 참됨을, 또 주님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물몬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활에서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에 따른다면 경전을 상고하게 될 것이고, 또한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김선하 자매〉



내 삶의 지침서

몰몬경은 내 삶의 지침서나 다름 없다. 나는 힘들 때마다 몰몬경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고, 의문을 가질 때마다 몰몬경을 읽으며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어떤 때에는 몰몬경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는 회개하기도 했다.

어느 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간구했다. 그리고 조용히 명상하다가 몰몬경을 읽어야겠다는 느낌을 받고 엘마서 7장을 펼쳤다. 그곳에서 찾은 엘마의 말씀은 마치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또 이제 나는 너희가 겸손하며, 유순하고 온화하며, 쉽게 권함을 받으며,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가득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부지런하며, 영적인 것이나 현세적인 것이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며, 너희가 받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를 원하노라. 또 돌아보아 너희에게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있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항상 선행이 넘치게 되리라. 또 주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의 옷을 흠 없이 지키사, 너희로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과,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있어온 거룩한 선지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옷이 흠 없음같이 너희의 옷이 흠 없는 채로 천국에 앞기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노라.”(엘마서 7장

23~25절)

나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몰몬경을 읽는 동안, 걱정이나 근심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몰몬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간증과 모범을 통해 그분들처럼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몰몬경을 사랑한다.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김준 형제〉

희망의 몰몬경

2006년은 나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야 했다. 교회 생활도 어려웠다. 나의 영성은 완전히 무너져서 마음은 어둠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매일 읽던 몰몬경도 거의 한 달 동안 읽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존경하는 교회의 선배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분은 나에게 몰몬경을 매일 읽으라고 권유하셨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매일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몰몬경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도 깨달음도 없었다. 그래도 나는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읽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날도 어김없이 몰몬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몰몬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영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두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존경하는 선배님의 부드러운 권유가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2010년 2월 8일, 선배님과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정상우 형제님이 힘들어 할 때, 정말 몰몬경을 이번엔 꼭 읽어야 된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렇다면, 형클어진 실타래가 하나씩 풀어지고, 다시 하나씩 감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막 형클어진 실타래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빼야 할지도 모르는, 자꾸 엉키기만 하는, 풀어 보려고 해 봐야 자꾸 엉키기만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형제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가 몰몬경을 읽으시면 하나씩 차곡차곡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말했고, 형제님은 몰몬경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나는 몰몬경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몰몬경은 다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몰몬경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주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으셨으며,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다신 한 번 알고 느끼게 되었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정상우 형제〉

교회로 이끈 몰몬경

난 몰몬경을 알기 전에 이미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다. 성경은 한 권이지만 그 해석에 따라 많은 교파로 나뉘어 자기 교회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직접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였다. 과연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교회가 있는 것일까? 있다면 그 교회는 어디일까? 많은 날들을 기도와 성경 공부에 매진하면서 눈물도 참 여러 차례 흘렸다.

여러 교회들을 ‘참된 교회’가 될

만한 가능성으로 분석하고 연구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몰몬교라는 종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몰몬경이 소설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믿는 몰몬교 또한 그릇된 종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소록을 찾아 인근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상당히 적대적인 내용으로 교회를 비판하며 그 교회가 그릇된 것임을 밝히겠으니 토론에 응해달라는 도전적인 말을 적어 보냈다. 며칠 후 감독님에게 답장을 받게 되었는데 편지에는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닌 개인적인 간증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몰몬경이 참되다는 단순한 선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호전적이던 나는 이상하게도 그 간증을 읽으면서 왠지 그 분을 만나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 번의 편지 교환 끝에 감독님을 비롯한 몇몇 교회 회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감독님은 내게 여러 교회 서적들을 빌려 주시고, 특히 몰몬경 합본을 선물로 주시면서 모로나이의 약속대로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책의 참됨을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처음 그 책을 집어 들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말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다. 혹시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동안 찾아 왔던 주님의 교회를 찾게 된 것 아닌가? 마음 한 구석은 의심으로 채워져 있었으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몰몬경의 각 장들을 읽어 가면서 항상 마음 속으로 “이 책은 참된 것입니까?”라고 계속 하나님에게 물어보았다. 솔직히 이사야서가 인용된 첫 부분들은 읽기가 고역스러웠고 기대했던 특별한 응답을 받지 못했던 터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했다. 하지만 엘마서를 읽어가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계속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제3니파이 11장의 예수께서 미대륙 백성들을 방문하시는 장면에서 들어서야 마침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듯한 강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아! 이것이 성신의 강한 증거로구나. 나는 너무나 기뻐 눈물이 났고 모로나이서를 끝으로 몰몬경을 다 읽었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다. 어찌나 기뻐했는지 몰몬경을 두 손에 들고는 꺾충꺾충 뛰면서 “나 참된 교회를 찾은 것 같아”라고 동생에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이 몰몬경은 따지기 좋아하고 성경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교만에 빠져 있던 내게 겸손을 가르쳐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구주이며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 계시다는 부인 못할 간증을

주었다. 이 책 덕분에 내 인생은 바뀌었고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훌륭한 자매와 성전에서 결혼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찾게 해 달라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음을 깨닫는다.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내 편지에 “순수한 간증”(엘마서 4장 19절)으로 반응해 주신 감독님과 물몬경을 읽고 기도했을 때 “성신의 권능으로 ……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신]”(모로나이사 10장 4절)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배문철 형제〉

주님의 선물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몰래 다니곤 하였는데 그러한 내 행동에 할머니는 꾸지람을 하셨다. 그런 이유로 나의 신앙 생활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가졌던 나의 믿음은 지울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내 삶에 새겼다. 만화책으로 된 성경 이야기를 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 당시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선한 삶에 대한 동경을 갖기도 했다. 그 후로 군대에 가서 그 당시 신학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복음에 대한 나의 갈증은 더해만 갔다.

그렇게 제대를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로

아파트 공사 일을 하다가 그만 7층에서 추락했다. 다행히도 안전망에 걸려서 살아났지만 나는 그 경험 후에 내 삶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며칠 후 황혼이 물들 무렵, 여러 생각에 잠겨 길을 걷고 있던 나는 휘파람을 불면서 걸어오는 여성을 보게 되었다. 소녀 티를 갖 벗어난 그 여성을 보는 순간,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행복한 느낌의 원천이 교회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잠시 기다린 뒤 그 여성에게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당황해 하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분에게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그리고 그밖에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분은 망설이지도 않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여 주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것이 참된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분은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책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물몬경을 나에게 주었다. 그분은 물몬경을 읽어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였지만 난생 처음 접한 이 책을 보고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싶어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던지 며칠 후 일을 하러 나가던 중에 옆집에서 나오던 그분과 골목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나는 몇 가지 질문을 더한 뒤에 그분의 권고를 받아들여 물몬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3일만에 다 읽었는데 마지막 모로나이사 반쪽 공간에 물몬경이

참되다고 쓴 그분의 간증을 읽었지만 내 자신이 응답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날 오후 2시경 공부를 하던 중에 한 속삭임이 마음에 임했다. 네가 읽은 물몬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보지 않겠느냐!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내가 읽은 물몬경을 생각했을 때 이 경전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순간 당황했으며 내가 왜 울어야 하는지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드렸을 때,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다고는 믿기지 않는 참으로 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맛보았다.

그 후 나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루 하루의 삶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졌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사람마다 물몬경의 참됨에 대한 경험들은 다르다. 내가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받은 후로 20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이것이 참되다는 확신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최천규 형제〉



뜨거운 청춘, 행복을 노래하다



강화도에 울려 퍼진 행복의 웃음

여름은 청년 대회의 계절이다. 이번 청년 대회는 강화도와 속리산 두 곳에서 열렸다. 강화도 청년 대회에는 서울 지역의 모든 스테이크와 수원 스테이크, 안양 스테이크, 인천 스테이크의 청년 독신 성인들이 함께 했다. 속리산 청년 대회에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주, 창원, 청주 등 7개의 스테이크와 순천, 울산, 제주, 홍성의 4개 지방부 청년 독신 성인들이 참석했다.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같은 날 열린 서로 다른 두 청년 대회는 장소와 활동은 달랐지만 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행복과 사랑, 신앙과 간증이 싹틔다는 점은 같았다.

서울 경인 지역의 청년 독신 성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강화도 청년 대회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 이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마태복음 24장 42, 44절)라는 주제로 열렸다. 청년들에게 있어 준비란 다름 아닌 성전 결혼. 대회 활동들도 성전 결혼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들이 성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대대를 구성했고 기존의 대대장과 부대대장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르며 대회 기간 내내 ‘가족애’를 다졌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헤쳐 나가는 가족처럼 청년들도 각자의 대대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들을 즐겼고 서로의 간증을 나누었다.

이번 강화도 청년 대회에서는

예전에 보지 못한 독특한 활동들이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첫 번째가 ‘공개 라디오’와 ‘미드나잇 토크톡’이었다. 소나기로 촉촉해진 강화도의 밤을 낭만과 사랑으로 물들인 두 모임은 사랑에 대한 재미있는 사연 소개와 그룹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해변의 전쟁’이라 이름 붙인 갯벌 활동이었다.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석모도 갯벌로 들어간 청년들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줄다리기, 밀어내기, 장애물 달리기, 꼬리잡기 등의 활동을 즐겼다. 서로의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온통 진흙투성이였지만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는 청년들의 똑 같은 표정만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청년 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무도회도 기존과는 사뭇 달랐다. 정장에서 탈피해 '복고'라는 주제로 각자 개성을 살려 옷을 입고 스윙과 라인댄스를 즐겼다.

청년 대회 기간 중이었던 8월 14일은 안식일이었다. 이번 청년 대회를 가장 특별하게 만든 합동 안식일 모임이 바로 이날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전날의 열기를 뒤로한 채 정장을 갖춰 입고 주일학교와 상호부조회, 신권회, 그리고 성찬식에 참석했다. 성찬식에서는 청년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좁은 건물과 불편한 의자였지만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성찬식 내내 경건함이 유지되었다. 70여 명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청년 합창단이 부른 '예수님 생각하오니'는 영적인 분위기를 한층 고취시켰다.

안식일 오후에는 'Talk about you'라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네다섯 명의 형제와 자매들이 각각 조를 이루어 돌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을 알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만한 기회나 시간이 없었던 청년들에게는 그 시간이 단비와도 같은 순간이었다.

청년 대회의 마지막은 '노변의 모임'이 장식했다. 비록 모닥불은 없었지만 맑고 개인 밤하늘 아래 앉아 풀벌레 소리와 바람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 서로의 간증을 나눌 수 있었다. 김창호 장로는 노변의 모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신권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발전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격려의 말을 남겼다.

8월 15일, 오전부터 이어진 두 번의 세미나를 끝으로 막을 내린 강화도 청년 대회는 모두의 마음 속에 성전 결혼에 대한 의로운 소망과 복음에 대한 간증을 심어준 채 아름답게 끝났다.

〈기사 제공: 박세라 자매, 이상미 자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니파이후서 5장 27절의 말씀인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속리산 청년 대회의 주제이자 대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분위기이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청년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활동이 진행되었다. 대대 이름도 행복해지기 위한 복음 원리들인 신앙, 소망, 사랑, 인내, 절제, 근면, 봉사, 겸손, 지식, 담대, 자애, 우정 등으로 지어졌다.

속리산 청년 대회의 첫날 저녁은 포크댄스 무도회가 장식했다. 서먹서먹함과 어색함을 깨는 데는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기고 열심히 춤을 추는 활동이 제일이었다. 청년들은 무도회가 끝나갈 때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친해졌다. 특히 대대원들 간의 우애가 돈독해졌는데 이 같은 과정은 다음 날 계획된 '베이스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행복으로 떠나는 여정'이라는 제목의 베이스 활동은 리하이 가족의 광야 여행을 체험해 보자는 취지로 대대 별로 속리산을 오르도록 계획되었다. 무르익은 여름의 속리산은 사정없이 열기를 뿜어냈고 햇살은 강렬하게 쏟아졌다. 자칫 힘든 활동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전날 다졌던 대대간의 끈끈한 우애가 빛을 발했다. 청년들은 서로를 끌어 주고 격려하면서 산을 올랐다. 군데군데 마련된 베이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청년들은 특히 '쇠막대 체험'과 '강철 활 체험'을 통해서 유혹을 이겨내는 법과 가족을 위해 사냥을 했던 니파이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

산행 후에 이어진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공통점을 가진 형제 자매가 짝을 이루어 발표를 하는 이색적인 활동이 펼쳐졌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같은 소망으로 의자에서 공중부양 묘기를 선보인 커플, 구르기가 특기라서 현란한 구르기를 선보인 커플 등 특색 있고 재미있는 공통점과 발표로 대회장은 웃음 바다가 되었다.

셋째 날인 8월 14일에는 강화도 청년 대회와 마찬가지로 합동 안식일 모임이 있었다.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그리고 주일학교 시간에는 각 스테이크의 회장이 공과를 진행했고, 성찬식에서는 배덕수 장로의 말씀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식일 모임 후에는 세미나가 이어졌다. 세미나의 주제는 성전 결혼이었다. 신권 지도자 부부들이 나와서 진행한 세미나에서는 성전 결혼의 실제적인 모습과 의미,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갔다. 세미나를 들은 대구 스테이크의 박한나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공과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결혼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속리산 청년 대회는 마지막 날 오전에 열린 두 번째 무도회로 화려하게 마무리되었다. 3박 4일 동안 두 번의 무도회를 준비한 것은 대회 기간 내내 호감을 품었던 형제 자매와 마지막으로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한 준비위원회의 배려였다. 마지막 날 무도회는 특별히 광복절이라는 특성을 살려 풍선을 이용해 태극기 모양을 만들고 아리랑을 선곡하는 등 색다른 시도를 했다. 무도회의 복장 역시 독특했다. 옛 추억을 되살리는 ‘교복’이 그것이었는데 청년들은 학창 시절로 되돌아간 듯 재미있는 교복 패션을 선보이며 즐거워했다.

무도회는 단체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고 그렇게 속리산 청년 대회도 끝을 맺었다. 사진 속 청년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3박 4일 간의 충실한 활동과 함께 나누었던 간증과 사랑이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새겼다. 속리산 청년 대회에 참석한 후기 성도 청년 독신 성인들은 그 기간 동안

“행복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

〈기사 제공: 정유진 자매〉



필요인가, 욕구인가

NEEDS & WANTS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1834년에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무릇 땅은 충만하고 거기에는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교리와 성약 104:17)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인간의 속성도 바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파트리지 감독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그 가족에 따라, 그 형편과 부족과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그들의 몫을 정해 줄지어다”(교리와 성약 5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개인별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지만 엄마,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라고 자주 떼쓰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단순히 원하는 것과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세적 필요

엘 톰 페리 장로님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글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페리 장로님이 정한 필요 사항의 순서는 1)음식, 2)의복, 3)거처, 4)연료입니다. (“성실함으로 할 것이니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참조) 우리는 페리 장로님이 말씀 제목으로 사용한 단어인 ‘성실함(simplicity: 단순함, 소박함)’에 주의를 기울일 만큼 현명해야겠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너무 복잡하게 살아서 수입 내에서 생활하고 빛을 지지 말라는 고대나 현대의 선지자들이 주신 권고를 따르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더 큰 주택, 수많은 가전제품, 더 사치스러운 차, 기차와 비행기의 편안한 좌석,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대형 텔레비전, 소형 음악 장비, 인터넷과 포켓 와이파이, 무수한 상표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지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정말 단지 음식과 의복, 거처, 연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선지자의 권고

물론 근검 절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삶을 살며, 이 곳 필멸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런 삶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때때로 옳은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었다는 철학과 변명을 피하십시오. 사치품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필수품이 아닙니다.”(“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치 않는 진리”, *리아호나*, 2005년 5월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 몬슨 회장은 젊은 부부에게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부부들이 여러 대의 자동차와 그들의 부모가 평생 일해서 구입한 것과 같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봉급을 담보로 하는 장기 부채를 지게 됩니다. 변화가 생기고, 여성이 자녀를 갖고, 몇몇 가족이 병에 걸리고, 직장을 잃으며, 자연 재해와 다른 사정이 생겨서 두 사람의 수입으로 대출금을 더는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아마 너무 늦을 것입니다.”(위의 책)

우리가 기본적인 현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분의 지혜 안에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하여, 질병이나 실직, 불운, 자연재해, 서투른 재정 관리, 다른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2011년은 교회 복지 프로그램 설립 75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선교사 시절 한 부인을 만났던 경험을 상고하면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는 “그 부인은 물질적인 도움이 절실했으나 내가 알기에 당시 스티어링 시에는 그런 도움을 줄 만한 단체가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리아호나*, 2011년 5월호, “성결케 하는 복지 사업”에서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장로가 인용함.)

지난 75년 동안, 금식 헌금과 다른 기부를 통하여, 교회는 맥케이 장로가 만났던 그 부인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교회는 세계 곳곳에 있는 감독과 지부 회장들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연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이 성스러운 기금을 집행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활 방식을 어느 정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겸손한 수혜자들은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감독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신을 통해 자신의 바람들 중 무엇이 실제적인 필요 사항인지, 무엇이 단순한 욕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감독과 와드 평의회는 함께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지난 4월 나는 캘리포니아 산페르난도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MTC 입소 날짜는 9월 6일이었다. 나는 5개월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고 다짐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성전

방문이었다. 나는 한 주에 두 번, 금요일에는 대리침례 집행을 돕기 위해 토요일에는 개인 의식을 받기 위해 성전을 방문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를 통해 내 신앙은 날로 발전해갔다. 그러던 중에 BYU-하와이에서 주최하는 장학생 선발 오디션에도 참가하고 개인 콘서트도 여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나는 청년 대회에서 청년 합창단을 지휘하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다. 합창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나는 곡을 선정하고 편곡하는 과정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등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했다. “이 청년 대회에서 당신께 드리는 저희들의 노래로 많은 이들이 행복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합창 단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청년 합창단은 ‘예수님 생각하오니’를 훌륭하게 노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설 수 없었다.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 국제 음악 콩쿠르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피로 때문에 목이 아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다. 콩쿠르 당일에는 다행히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다. 나는 심사장으로 가기 전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도했다. 그리고 무대에 서서 피아노를 잡는 순간, 따뜻한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고 한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노래했다. 결과는 남자 성악 부문 2위, 전체 성악 부문 4위였다.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나는 이제 5개월여의 알찬 시간을 보내고 MTC로 향한다. 그 후에는 산페르난도 선교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들에 나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김장환 형제

돈보다 값진 우정



김인규 형제(맨 왼쪽)와 친구들. 왼쪽부터: 김해수, 민동민, 조상우, 김일수, 박중화 형제

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던 내 친구들은 모두 침례를 받았다. 벌써 일 년 전의 일이다. 친구들은 나를 교회에 적응을 잘 하고 있었지만 개종자로서 힘들어 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영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청년 대회가 열렸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나는 친구들에게 함께 갈 것을 권유했지만 모두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못 간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친구들에게 회비는 내가 책임질 테니 함께 가자고 말해 버렸다. 잠시 고민을 하던 친구들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을 해 버린 것이 조금 후회되기도 했다. 하지만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청년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뻐다. 문제는 돈이었다. 회비를 확인해 보니 무려 삼십칠만 오천 원이었다. 내게는 선교 사업 기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 있었다. 그 돈 중에서 사십만 원 가량을 뺏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출이었지만 이 돈으로 친구들을 청년 대회에 보내고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거라는 생각을 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친구들은 청년 대회 기간 내내 즐겁게 지냈고 다른 회원들과 많은 우정을 나누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어땠느냐고 물어봤다. 돌아온 대답은 “정말 재미있었다”와 “또 오고 싶다”였다.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 나에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김인규 형제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4명/해외 7명



김장환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캘리포니아
산페르난도 선교부



연수현 자매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부산 선교부



김준희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도쿄 선교부



이서정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길동 와드
대전 선교부



김하연 자매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로스앤젤레스 성전
방문자 센터



최명기 장로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시드니 선교부



박민지 자매
대구 스테이크
경산 지부
쿠모라 언덕 방문자
센터



최수환 장로
인천 스테이크
가정 와드
캘리포니아
산페르난도 선교부



석광현 장로
대전 스테이크
논산 지부
시드니 선교부



허동호 장로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일본 나고야 선교부



신현범 장로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부산 선교부

새로 부름 받은 취업 선교사 부부

이상태 장로와 홍경자 자매 부부와 김백주 장로와 김은숙 자매 부부가 서울 취업 자원 센터에서 취업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권찬태 장로 부부의 뒤를 이은 두 부부는 2011년 8월부터 봉사를 시작했다.

이상태 장로는 스테이크 회장, 감독, 지방부 회장단 보좌 등의 부름을 역임했고 홍경자 자매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와드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남 1녀의 자녀가 있다. 김백주 장로는 감독, 선교부 회장단 보좌, 대제사 그룹 지도자로 봉사했고 아내인 김은숙 자매는 상호부조회 회장, 초등학교 회장 등의 부름을 역임했다. 두 사람은 2남 1녀의 자녀를 가졌다.

이상태 장로는 “많은 회원들이 좋은 직장을 구해서 신앙 생활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백주 장로는 “취업을 위해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교육을 하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상태 장로는 봉사와 부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봉사한다면 주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고, 저희의 작은 봉사로 주님 사업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간증했다. 김백주 장로도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잘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라고 간증을 전했다. ■

왼쪽부터: 이상태 장로, 홍경자 자매, 김은숙 자매, 김백주 장로



지역 소식에서는 성탄절 특집호인 12월호 리아호나를 준비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간증과 사연을 모집합니다. 봉사에 대한 특별한 간증이나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마감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량: A4 한 장(사진 첨부)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6동 103-1번지 3층 전건우 형제 앞
메일: aron1979@hanmail.net(전건우 형제)
전화: 02)2232-1441(내선: 564)

정정 기사

2011년 9월호 지역 소식의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중에서 추윤아 자매님의 소속을 인천 스테이크 연수 와드로 정정합니다.